

허경옥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가계재무구조분석

소득계층별 비교를 중심으로

200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한수진

가계재무구조분석

- 소득계층별 비교를 중심으로 -

허경옥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한 수 진

認 准 書

한수진의 박사학위 논문을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모든 가계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기 위해 노력을 한다. 또한 각 가계의 총 효용은 가계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그 가계가 일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할 때 극대화된다. 그러나 현재 자신이 속해있는 가계의 재무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어느 정도 재무구조를 파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미래에까지 안정적인 유지, 혹은 향상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가계의 소득계층에 따른 가계재무구조 및 가계재무비율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계층에 따라 재무구조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소득계층에 따라 재무비율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적정 재무비율 준거기준을 만족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재무비율에 관한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고, 실증분석을 위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5차 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가구용 자료에 개인용 자료를 통합하여 개인용 자료에서 가구주의 정보가 없는 가계는 제외시켰다. 가구주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정보도 함께 통합하였다. 또한, 소득계층을 구분하기 위해 연간 총 소득이 2002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4,144,944원(345,412원 ×12개월) 미만 가계는 연구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제외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762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재무구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사자료를 SPSS Window

(Version1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초통계인 빈도, 평균값, 표준편차, 그리고 독립표본 t-test, 카이검증,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Duncan의 사후검증, Logit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변수의 변화에 따른 확률을 알아보기 위해 Excel Program을 이용하여 그 값을 추정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계층별 재무구조는 소득수준이 높은 소득4분위집단의 소득·지출 그리고 자산·부채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소득4분위집단 즉, 고소득 집단의 가계재무구조와 상태는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소득가 계인 소득1분위집단의 가계재무구조는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부족하고, 순자산보유액 정도가 낮아 가계의 안정적인 재무관 리가 어려우며 미래 예기치 못하는 위험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것으로 예 측된다.

둘째, 가계 특성 중 우선, 가구주 연령에 따른 재무비율을 살펴보면, 소득· 소비지출관련 비율은 가구주 연령이 낮은 가계가, 자산과 관련한 비율은 가구 주의 연령이 높은 가계가 안정적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가구주의 연령이 높 아질수록 보유자산이 증가하는 것을 통해 우리나라는 자산축적에 민감하며, 부 동산 소유욕구가 강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자녀가 없는 가계와 1인 가계의 재무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인임을 알 수 있었다. 가구원수 특히, 자녀의 유무 및 자녀수의 증가가 가계의 재무적 구조를 불안정하게 하는 핵심요소임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들이 최근 우리사회의 무자녀 가계, 독신가계의 증가현상을 일정부분 설명하는 것으 로 보여지며, 이제는 많은 가계들이 무자녀, 독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구주 비취업가계와 배우자 비취업가계의 단기유동성비율이 취업자 가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 취업가계의 월소득은 배우자 비취업

가계보다 높았으나, 배우자 비취업가계의 금융자산이 배우자 취업가계보다 월등히 높아, 가계의 충분한 자산보유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진입하지 않게 하는 동기가 되리라 사료된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가계재무상태에 따라 여전히 선택사항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거주가계는 기타 다른 지역 거주가계보다 투자자산비율 Ratio⁷이 높았는데, 이는 자산증식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은퇴 후 혹은 소득중단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은퇴전과 비슷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자산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각 소득계층별로 가계의 재무적 안전감과 미래지향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절한 수준의 자산보유형태가 중요한 변수가 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고소득계층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적정비율을 확보하고, 부채를 감소시키며, 순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즉, 가계특성 및 소득수준에 맞는 자산보유액을 인지하고, 가족구성원의 효용극대화를 위한 실천에 노력해야 하겠다.

본 연구는 각 가계의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미래의 가계 안정적 재무구조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각 가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금융기관의 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며, 가계경제력 향상에 따른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예측함으로써 경제계획 수립 및 복지정책의 수립에 참조자료로 사용가능할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5
1. 가계재무구조	5
1) 소득·지출	5
2) 자산·부채	7
2. 가계재무비율	12
1) 가계재무비율의 정의	12
2) 가계재무비율의 분류	13
3. 가계소득계층	17
1) 가계소득계층의 정의	17
2) 가계소득계층의 분류	18
III. 선행연구고찰	20
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연구	20
2. 가계보유자산에 따른 연구	25
3. 가계재무비율에 따른 연구	27
4. 가계소득계층에 따른 연구	29
IV. 연구방법	31
1. 연구문제	31
2. 자료 및 측정도구의 구성	32

1) 자료 및 표본	32
2) 측정도구의 구성	33
3) 분석 방법	36
3. 연구모델	38
IV. 연구결과	40
1. 소득계층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차이	40
2. 소득계층에 따른 가계재무구조 차이	44
3. 가계재무비율 차이	50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계재무비율 차이	50
2) 소득계층에 따른 가계재무비율 차이	54
4. 가계재무비율 영향요인	57
1) 가계재무비율 준거기준 만족여부	57
2) 가계재무비율 준거기준 만족 영향요인	58
V. 결론 및 제언	68
1. 요약 및 결론	68
2. 제언	75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주요가계채무비율	16
<표 2> 가계채무비율 정의 및 측정방법	35
<표 3> 소득계층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차이분석	40
<표 4> 소득계층에 따른 가계채무구조 차이분석	45
<표 5>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계채무비율 차이분석	51
<표 6> 소득계층에 따른 가계채무비율 차이분석	55
<표 7> 가계채무비율 준거기준 만족여부	57
<표 8> 가계채무비율 준거기준 만족 영향요인분석	59

그림 목 차

<그림 1> 가구주연령에 따른 Ratio1의 준거기준 만족확률	60
<그림 2> 자녀수에 따른 Ratio1의 준거기준 만족확률	61
<그림 3> 가구주연령에 따른 Ratio2의 준거기준 만족확률	62
<그림 4> 가계경제여건평가에 따른 Ratio2의 준거기준 만족확률	62
<그림 5> 가계경제여건평가에 따른 Ratio3의 준거기준 만족확률	63
<그림 6> 가구주연령에 따른 Ratio4의 준거기준 만족확률	64
<그림 7> 가계경제여건평가에 따른 Ratio6의 준거기준 만족확률	66
<그림 8> 자녀수에 따른 Ratio7의 준거기준 만족확률	66

I. 서 론

현대사회의 가계는 급속도로 진행되는 경제성장과 기술수준 향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많은 경제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가계의 경제구조뿐만 아니라 생활양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자녀수의 감소, 가족규모의 축소 그리고 결혼연령의 증가에 따라 자녀 출산기와 양육기가 단축되고 노년기가 대폭적으로 연장되었다. 한편,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이로 인한 경제활동참여는 가족구성원들의 역할분담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으며, 가계 경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가계는 경제적 생활수준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재정목표를 설정하며 이와 관련한 재무관리에 능동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저하시키므로 가계의 안정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최근 경기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는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현상과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도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기변동은 우선 가계의 실질소득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원을 상실하게 만들기도 한다. 특히, 근로소득이 아닌 비근로소득을 주소득원으로 하는 가계는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주소득원이 근로소득인 가계라 할지라도 직업의 형태에 따라 직업안정성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소득원의 안정성을 잘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비책을 미리 준비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교통·통신수단의 발전으로 각종 소비 행태의 확산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화의 결제 수단도 다양해져서 결제수단에 따른 득실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많다. 더 나아가 개인의 소득능력과 더불어 신용이 경제생활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

관리가 가계의 생활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여겨진다. 이러한 많은 변화 가운데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급속도로 변화하는 인간의 무한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이처럼, 현대 자본주의하의 경제사회에서는 개개인이 그들의 책임하에 자신의 경제생활에 대해 스스로 선택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개인에게 경제적 선택의 기회가 증가되었고, 가계의 재정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폭과 경제적 복지도 더욱 증진되었다. 그러나 충분한 정보탐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잘못된 선택이나 효율적이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증가하며, 그에 의한 손실과 위험의 폭도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장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적절한 경제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을 줄이고, 더 나아가 가계가 가진 재정자원의 활용도를 향상시키는 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가족 구성원이 향유할 수 있는 복지수준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가계의 운영자가 항상 최신 정보를 탐색하여 가장 효율적인 결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므로 각 가계의 특성에 맞는 재정적 요구를 분석하여 그에 알맞은 재무관리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계는 자원, 목표 및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자원을 획득, 배분 그리고 소비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경제주체이자 소비자단위이다. 이러한 가계는 급변하는 사회구조 안에서 가족구성원의 변화와 이들의 욕구충족에 반응할 수 있는 자원제약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평균 가구원의 수가 적어지고 단독 가계 또한 증가하면서 가족원이 추구하는 욕구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한편, 가족원의 질적인 만족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높아진 생활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인적 자원부족 그리고 시간의 부족 등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가계는 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만족이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과정에서 물리적 혹은 생물학적인 제약에 부딪히게

되며, 법 또는 사회적 규제에 의해 경제활동을 제한받기도 한다. 가계는 이같은 여러 제약조건 하에서 가족원의 효용극대화 창출을 위해 각 가계의 특성에 적절한 재무계획과 재무관리수행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재무관리를 통하여 생활수준의 유지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 또는 최소화한다면 가계의 경제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재무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구원 특히 가구주의 연령, 소득, 보유자산, 생활수준 등을 감안하여 장래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예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가족원 모두가 재무적 안전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가계소득은 가계에 경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사건의 하나로 취급된다. 특히, 소득의 감소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형태는 은퇴와 더불어 발생하는 소득감소이다. 또한, 실직이나 사업실패, 새로운 일의 시작이라든가 이직과 같은 사건과 관련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히, 발생시기에 관해 예측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가계는 그 가계가 속해있는 소득수준에 따라 재무관리 목표가 다르며, 추구하는 생활양식 및 가치가 다를 것이다. 고소득가계와 저소득가계의 재무구조는 다른 형태로 구성되며, 이로 인해 수많은 서로 다른 재무관련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즉, 가계소득수준에 따른 가계의 경제활동이 다르기 때문에 가계의 재무구조도 변화를 하게 된다. 가계는 효용극대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가계재무구조를 모색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볼 때, 가계가 가지고 있는 소득수준별로 가계재무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가계의 현 재무상태 뿐만 아니라, 소득의 증감에 따른 미래의 재무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가구주의 직업유형, 노인·비노인가계, 혹은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각 가계의 재무구조를 파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가계의 체계적인 재무구조 분석을 위해 전체 조사대상의 가계 소득수준을 4분위로 구분하였다. 즉, 소득1분위는 소득상위 75~100%, 소득2분위는 소득상위 50~75%, 소득3분위는 소득상위 25~50% 그리고 소득4분위는 소득0~25%에 속한가계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가계를 총소득 4분위로 구분하여, 이들의 재무구조를 분석하고 각 집단별 가계재무구조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재무구조를 토대로 재무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득수준별 가계의 재무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적정 재무비율 준거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미래 가계재무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각 가계의 재무관련 의사결정에 있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미래의 안정적 가계재무구조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각 가계의 소득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소득수준 상위 25%집단에게는 높은 소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산증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며, 하위 25%집단에게는 낮은 소득수준으로 가계구성원들의 재무적 목표를 달성시키고, 가계의 재무구조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금융상품을 제시하기위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가계의 재무 목표달성에 따른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예측함으로써, 국가경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가계의 소득계층별 복지정책의 수립에 참조자료로 사용가능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가계재무구조

가계재무구조는 일반적으로 소득, 지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계의 소득과 지출은 가계재무의 흐름을 보여주며, 가계소득과 소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흑자규모나 저축을 통하여, 유량적 측면의 가계재무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다(성영애, 2003). 또한, 가계재무구조는 가계의 자산과 부채를 통하여 평가되기도 한다. 축적된 자산은 가계복지의 중요한 지표이며, 특히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어느 시점에 이르면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한다. 한편, 가계의 부채부담은 가계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가계재무를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심영, 1993; 최현자, 1996). 가계는 일정기간동안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용을 얻고자 한다. 즉, 특정기간에 한 가계 내에 들어오는 소득과 충족시켜야 할 가족원의 욕구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저축 혹은 차용을 이용해 가계의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성영애, 1996). 뿐만 아니라, 가계가 자산을 보유하고 재무관리를 하는 이유는 소득감소나 기대 이상의 소비지출이 있을 경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재무구조분석은 소득, 지출을 통해 가계의 유량적(flow)측면과 자산 및 부채를 통해 저장적(stock) 측면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소득·지출

가계의 소득은 일정기간 내에 가계로 유입되는 화폐가치의 총량으로서 가계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투입요소이다. 이는 자산으로 축적됨으로써 미래의 생활보장 및 소득 재창출과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이다.

가계소득은 크게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소득은 시장노동에 참여한 구성원이 고용인으로부터 노동의 대가로 받게 되는 화폐로, 임금 혹은 기업가가 생산 활동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을 포괄하고 있다. 비근로소득은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금융소득은 금융기관·비금융기관으로부터의 이자 및 투자소득, 주식 및 채권 등의 매매차익 그리고 기타 배당금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동산소득은 소유 부동산으로부터 임대료의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이며, 이전소득은 정부보조의 복지수당이나 연금, 상속이나 증여, 보험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 실질소득이 증가함과 동시에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이 증가하는 소득원천의 다변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한국가계는 흑자 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가계경제구조를 띄고 있다는 것이다(윤정혜 외 6명, 2001).

가계는 획득한 소득 혹은 자산을 주 근거로 가계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의 실현을 위해 자원을 사용하게 되며, 이러한 행동영역에는 재정적인 요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가계의 가장 큰 지출은 가계의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월평균 소비지출비(식비, 외식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차량유지비, 주거비, 경조사비, 보건의료비, 문화비, 내구재, 통신비 등)와 미래를 위한 예비적 혹은 투기적 동기에 의한 저축(적금, 연금,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계 등) 이 이에 해당한다.

가계는 연령에 따라 저축을 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안정적인 소득이 생기기 이전에는 전혀 저축을 하지 못하고 빌어쓰기만 하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소득이 늘어나 저축이 많아지게 되며, 노년기에는 그 동안 저축한 것을 소비하며 산다는 것이다. 우리가 저축을 하고 자산을 늘리는 이유는 전생애에 걸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효용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조순·정운찬, 1993).

가계의 수지상태는 총소득과 총지출의 차액으로 산출 할 수 있다. 즉, 총소득

에서 총지출을 뺀 값이 (+)값, 0 그리고 (-)의 값으로 표현된다. 일정기간동안 현금의 흐름이 나간 것 보다 들어온 것이 많을 때, 그 값은 (+)의 값을 가지게 되며 이를 가계 수지상태가 흑자라 일컫는다. 또한, (-)의 값을 가지면 가계수지는 적자가 된다. 가계수지가 흑자가 되면 남는 돈은 저축이나 투자, 또는 부채 상환으로 사용하여, 가계재무구조 안정화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적자가 되는 부분은 자산이나 부채로 충당을 하게 된다. 보유자산이나 부채의 사용은 가계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2) 자산 · 부채

가계의 자산은 가계재무관리의 대상이 되는 주요자원이며, 경제적 가치를 갖는 모든 소유물이라 할 수 있다. 가계자산에는 수익성과 안전성, 환금성 등의 특성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수익성은 어느 정도의 수익으로 자산을 증식시키는가를 보는 것이며, 안전성은 원래의 자산을 잃어버리지 않고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정도이며, 환금성은 필요할 때 자산의 처분으로 얼마나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이승신 외 4명, 1996).

Hefferan(1982)은 저축에 대한 영향변수의 연구에서 재정자산과 부동산에 대하여 인적자본의 개념으로 교육비와 교재비, 보험과 연금을 현금가치로 계산하여 가계자산을 측정하였고, Lytton, Garman과 Porter(1991)는 가계자산을 유동성에 따라 유동자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택, 자동차와 같은 사용자산, 투자자산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DeVaney(1993)의 연구에서는 실물이 있는 자산인지 종이에 쓰여진 자산인지를 기준으로 증서자산(Paper Assets)과 부동산으로 나누었고 이를 다시 투자자산과 유동자산으로도 나누었다. 투자자산에는 증서로 된 자산과 주택 외 부동산, 사업자산이 포함되며, 유동자산은 연금을 제외한 모든 증서자산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김순미(1987)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나누어 전체 자산액을 측정하는데 사용하였다. 양정선(1992)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저축을 금융저축으로 보고 증권투자에 주식, 채권을 포함하고 부동산을 분류하였지만 1996년 연구에서는 금융자산을 안정자산과 위험자산으로 분류하고 위험성에 기준을 두었다.

앞에서 살펴본 자산구분유형을 토대로 자산을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구분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자산 중 은행예금은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으로 가까운 장래에 필요한 돈을 위해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요구불 예금과 중·장기에 걸쳐 목돈 마련을 하기 위한 저축성예금과 적금으로 구분된다. 대체로 주식이나 채권에 비해 환금성과 안전성은 높으나 수익성이 낮으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가치 하락의 위험 또한 배제할 수 없는 변수이다. 최근에는 이자율에 대한 자율화와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은행 간의 경쟁의 심화로 저축상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계는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넓어지고 있다.

금융자산 중 주식의 경우는 대체 투자의 하나이면서 수익성은 높으나 안전성에서 떨어지는 것으로서 80년대 이후 매우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주식이란, 기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그 기업에 투자한 정도에 따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통 기업이 자금마련을 위하여 기업의 일부를 주주에게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식은 경기불황과 사회적 불안감이 영향을 준다고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 아직은 주식시장이 가계투자의 대상이 되기에는 성숙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손주영, 1998).

한편, 보험은 사고나 재난과 같이 예기치 못한 개인적인 위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복원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사고로 인해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수의 경제주체가 협동하여 합리

적으로 산정된 비용을 지급하고 조달하는 경제적인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사회적 공동 부조 혹은 가계 자산보호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자산의 증식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자산에 닥칠 위험에 미리 준비하여 자산을 보존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투자의 하나로 본다. 또한 연금의 성격을 띤 보험은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로 미래의 소득을 위한 투자로 볼 수 있다.

채권은 정부나 금융회사, 일반회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로서 종류가 다양하고 이율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가계에서는 익숙하지 않지만, 안전성도 있고 이율도 높아서 잘 이용하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보통 투자신탁이나 은행의 신탁계정으로 위탁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박연수, 1997). 이러한 채권은 발행자에 따라서 국·공채와 회사채로 나누어진다. 국공채는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보증을 하고 있어 안전성이 높고 보통 장기로 운영되기 때문에 환금성이 떨어지나, 회사채의 경우는 시중금리에 따라서 그 가격이 정해지므로 손익을 잘 따져야 하기 때문에 주식과 비슷하게 위험성이 있다.

실물자산의 주요 수단으로서 토지나 그 정착물 소유인 부동산관련 자산은 관련 조세제도(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를 고려해야하나, 자산의 안전성과 일정수준의 이익을 보장하는 특성을 가진 변수이다. 또한 과거에 축적된 자산이나 유산은 현재나 미래의 가계재무상태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이다. 특히 특정한 가계유형, 즉 노인가계나 근로소득이 중단된 가계 등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최현자 외 3명, 2003).

가계는 각기 그 구성원들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때때로 부채를 사용한다. 저축이 현재의 소득보다 적게 소비하며 이로써 나중에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하는 반면, 부채는 현재의 소득보다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으나 미래의 소비는 미래의 소득보다 더 적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현재의 고소비는 미래의 제한된 소비를 의미하며, 나중에 고소비를 하고자 하면 현재에는 낮

은 수준의 소비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채는 가계의 경제적 자원으로 작용하여 부채를 이용하는 어느 일정기간동안 가계의 구매력을 높여줌으로써 가계는 가족원의 효용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심영, 1993).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채를 자산의 일부로 여기지 않고 있으나, 부채는 현재의 구매를 위해 미래소득을 미리 당겨쓰는 것으로서 음(-)의 자산형태변수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가계는 어느 정도까지의 부채를 지고도 가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고자하며, 일반적으로 월평균가계소득 중 부채상환에 드는 금액의 비율이 20%를 넘지 않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미국 전문 재무설계사들은 20~40%를 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Hira, 1990, Waddell, 1999).

또한, 가계의 과도한 부채는 재정적자, 지불연체, 가계파산과 같은 가계경제 문제를 야기한다. 즉, 미래를 앞당겨 쓰는 가계부채는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도 가중된다. 따라서 가계에 부담을 적게 주면서 부채를 활용하는 합리적 부채이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적절한 부채규모, 적정 규모의 월평균 부채 상환액, 소득대비 어느 정도의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부채유형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주택구매와 관련한 부채에서도 상환기간의 선택, 대출의 출처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채는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파산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가계의 재정적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득계층별로 순소득을 증가시키는 방안, 부채를 절감시키는 방안 그리고 자산 소유 및 부채의 재구성 방안등을 모색해야 하겠다.

자산 상태는 재무구조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자산이 각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한 분야에 과잉 대비하는 반면, 다른 분야에는 심각할 정도로 취약하지는 않은지, 한 종류의 자산에 너무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검토할 수 있다(이기춘 외 5명, 1998).

가계의 실질자산보유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순자산은 총자산과 총부채의 차

이다. 즉, 순자산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처분해서 모든 부채를 갚을 때 남는 것이다. 그러나 순자산은 쉽게 현금화 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사용 가능한 돈은 아니다. 순자산은 가계의 생애주기 단계가 진행될수록 순자산이 늘어나게 되며 은퇴기에 이르러서 소득이 완전히 중단되면 가계의 지출은 순자산을 전환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감소하게 된다. 순자산의 지속적인 음(-)의 값은 가계 재무구조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가계파산의 위험이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투자자산은 가계가 미래의 재정적 목표와 자산증식을 위해 투자한 모든 자산으로 현금보유액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합으로서, 순자산의 정의에서 가계가 투자보다는 저축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예금자산과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가치가 제외된다고 할 수 있다(여윤경, 2003). 즉, 투자자산의 범위에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불입액, 계, 사채 등이 포함되어 있다(최윤지, 최현자, 1998). 따라서, 일반적으로 투자자산은 일반 소지비출에 사용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계의 경제적 사건에 쉽게 사용되지는 않는다. 투자자산은 유동자산에 비해 현금화에 따른 자산가치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자산이다(배미경, 2001).

2. 가계재무비율

1) 가계재무비율의 정의

가계소득, 소비지출, 자산 및 부채 등을 통한 가계재무상태의 평가는 간단하게 가계경제의 기본적인 측면을 파악하게 해주나, 가계재무 비상사태나 장기적인 위험, 부채에 대한 대처 능력 등을 포함하는 가계의 안정성, 가계자산의 균형성이나 성장성 등과 같은 가계경제의 복합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가계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이상의 재무변수를 조합한 가계재무비율이다(최현자 외3명, 2003).

이러한 재무비율은 가계재무상태를 평가하며, 소득, 지출, 자산과 부채 등을 이용하여 연구자마다 혹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르게 선택되어 왔다. 즉, 개인 및 가계의 재무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방법도 모든 목적에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다(Crystal & Shea, 1990).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대상에 따라 다양한 지표들을 적합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일관성 있는 경제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가계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준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재무비율은 원래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비율로 재무제표 상에 표기된 항목의 수치를 다른 항목의 수치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김철중, 2000). 이를 가계의 재무상태파악을 위해 적용된 것으로서, 단순히 소득과 지출로 가계의 재정상태를 측정하는 것보다 두 가지 이상의 재정항목을 사용하여 재정상태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재무비율은 가계가 달성해야 할 재무적 목표를 제시해 줄 수 있으며, 가계가 실제로 어떠한 재무행동을 하는가를 측정할 수 있다.

한편,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계의 경제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해줌으로써 가계의 재무유형의 분석 및 재무 상담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가계의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저축과 투자유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DeVaney, 1993).

2) 가계재무비율의 분류

많은 연구들이 소득, 지출, 자산 등을 조합한 가계재무비율을 통하여 가계재무상태를 평가하고, 가계재무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Griffith, 1985; Langrehr & Langrehr, 1989; Prather, 1990; Garman & Forgue, 1994; Lytton, Garman & Porter, 1991; Crystal & Shea, 1990; DeVaney, 1993; 양정선, 1997; 최윤지·최현자, 1998; 채은석·성영애, 2000; 안승철·김년희, 2001; 최현자, 2001; 성영애, 2003; 최현자 외 3명, 2003). 가계재무비율은 크게 지출과 소득간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소득·소비지출 관련비율과 가계 흑자율, 긴급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가계의 능력을 알려주는 유동성비율, 미래의 재정상태의 향상정도를 평가하고 지불능력을 평가하는 부채부담비율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Griffith(1985)는 가계재무상태 분석에 도움이 되는 16개의 재무비율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가계자산의 유동성에 초점을 둔 7가지 재무비율과 부채부담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지불능력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4가지의 재무비율 그리고 재무구조 중 유형자산의 비중을 측정하는 5가지의 재무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Prather(1990)는 Griffith가 제안한 16개의 재무비율을 처음으로 실증적 연구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월평균 지출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총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비담보 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단기부채와 기타 부채의 연간상환액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자산의 순가치와 유형자산의 합에서

주택의 가치를 제한 것이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유용한 기준이라 하였다.

Griffith(1985)와 Prather(1990)가 제기한 재무비율은 순자산을 구성하는 각 구성요소들의 비율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Lytton, Garman과 Porter(1991), DeVaney(1993) 등은 순자산 이외에 다양한 측정목적에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무비율을 개발하였다. 한편, 이들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연구(양정선, 1997; 최윤지·최현자, 1998; 안승철·김년희, 2001; 최현자·이희숙·양세정·성영애, 2003)에서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분석을 시도했으며, 그 주요 가계재무비율은 <표 1>에 제시하였다.

Lytton, Garman과 Porter(1991)는 현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부채부담을 파악하며, 재정상태의 향상을 위해 재무비율을 이용하였다. 이들은 재무변인들을 월평균 가처분 소득을 이용한 부채 및 유동성비율, 저축비율을 측정하여 제시하였고 그 외 소비지출, 월평균 총주거지출, 총주거 자산, 총주거관련 부채, 투자자산변인을 확대하여 재무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안정적인 재정지표는 투자자산이 순자산의 최소한 25%가 될 때이며, 가족형성기의 경우 이 비율은 20%미만이라 하였다.

DeVaney(1993)는 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표가 되는 부채부담 비율을 이용하여 가계재무상태를 분석하였다. 이 부채부담비율은 총자산/총부채 비율로서 가계의 전반적 재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지표가 됨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가계과산 예측을 위한 재무설계기준으로 유동성, 가처분소득에 대한 연간 총부채상환액 비중을 이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적합한 재무비율을 준거기준을 마련하고자 몇몇 연구가 실시되었다. 양정선(1997)은 산술적 저량에 기초한 측정방법을 통하여 전반적인 가계의 재정상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의 재무비율 준거기준을 이용하여 유동자산 보유액의 적절성, 초과지출여부, 유동자산을 이용한 부채상환능력, 지불능

력 및 유동성 등을 측정하였으며, 실물자산을 이용한 부채상환능력, 부채청산에 소요되는 기간, 주관적인 최저생계비와 실제 소득 및 지출의 관계, 주관적 최저생계비율 등을 측정하였다.

최윤지·최현자(1998)는 재무비율을 이용한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소비비율, 유동성비율, 부채부담비율, 자본축적비율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생활주기 전반에 걸쳐 주요 재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저축 및 지출의 비율을 평가해주는 새로운 재무비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안승철·김년희(2001)는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의 재정상태 분석을 위해 재무적 변인 외에 소비지출비율, 유동성비율, 부채비율, 자산축적비율을 산출하였다. 이들은 보유 자산의 여부, 저축 및 부채보유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재무비율 준거기준에 만족하는 가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최현자 외(2003)는 재무상태에 적합한 지표나 준거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가계의 재무지표를 안정성지표,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 위험대비지표, 부채부담지표를 구분하여 준거기준을 마련하였다.

여러 학자들이 적용하고 있는 가계의 재무상태 및 구조의 분석을 평가하기 위한 재무비율은 현재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단기적인 재무설계능력을 평가하고, 가계재무상태의 향상정도를 파악하고 장기적인 재무설계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김연정,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주요 가계재무비율을 토대로 연구목적에 맞는 재무비율을 선정하여 각 가계의 소득계층에 따른 가계재무구조 분석을 하고자 한다.

<표 1> 주요 가계 재무비율

	Lytton, Garman & Porter(1991)		DeVaney(1993)	
	재무비율	Guideline	재무비율	Guideline
소득 · 지출 비율	월평균순소비지출/월평균가처분소득	1.0미만	연간주거비/총소득	0.28이하
	연간총저축/연간가처분소득	세전소득10%		
	월평균총주거지출/월평균가처분소득	0.30~0.40		
유동성 비율	유동자산/월평균순소비지출	2~6개월분	유동자산/가처분소득	0.25이상
자산 · 부채 비율	월평균소비자부채상환액/가처분소득	0.10이하	연간부채지불액/가처분소득	0.40이하
	총연간부채상환액/총연간소득	0.30~0.35	총자산/총부채	1.0이상
	총주거자산/총주거관련부채	-	연간소비자부채지불액/가처분소득	0.15이하
	투자자산/순자산	0.20이상	투자자산/순자산	0.25이상
	양정선(1997)		최윤지·최현자(1998)	
소득 · 지출 비율	연간총지출/연간총소득	1.0미만	월평균소비지출/월평균가처분소득	1.0미만
	주관적 최저생계비/월평균가계소득	1.0미만	연간총저축액/연간가처분소득	0.1초과
	주관적 최저생계비/월지출	1.0미만		
유동성 비율	금융자산/월지출액	3.0이상	유동자산/월지출액	3.0초과
	금융자산/순자산	0.25이상	유동자산/연간가처분소득	0.25초과
			유동자산/순자산	0.25초과
자산 · 부채 비율	금융자산/총부채	0.1이상	유동자산/총부채	0.1초과
	실물자산/총부채	1.0이상	총부채/순자산	1.0미만
	총자산/총부채	1.0이상	실물자산/총부채	1.0초과
	총부채/순자산	1.0이상	투자자산/순자산	0.2초과
	총부채/연간총소득	-		
	안승철·김년희(2001)		최현자·이희숙·양세정·성영애(2003)	
소득 · 지출 비율	월평균소비지출/월평균가처분소득	1.0미만	월평균생활비/월평균가계소득	0.9미만
	월평균총주거지출/월평균가처분소득	0.30~0.40	월평균보험료/월평균가계소득	0~0.2
	연간총저축액/연간가처분소득	0.1이상	연간총저축액/연간가처분소득	0.1이상
유동성 비율	유동자산/가처분소득	0.25이상	금융자산/월평균생활비	1.0이상
	유동자산/월평균소비지출	2~6개월	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	1.0이상
	유동자산/순자산	0.25이상	금융자산/총자산	0.1이상
자산 · 부채 비율	유동자산/총부채	0.1이상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	0.25이하
	총부채/순자산	1.0미만	총부채/금융자산	10이하
	실물자산/총부채	1.0이상	총부채/총자산	0.8이하
	투자자산/순자산	0.2이상	투자자산/총자산	0.05~0.1
			실물자산/총자산	0.9이하

3. 가계소득계층

1) 가계소득계층의 정의

세습적인 신분이 사라진 현대의 사회계층은 일차적으로 가구주의 교육, 직업, 소득 등에 따라 형성되고, 그밖에 이웃의 특성, 주택의 가치, 개인적 성취, 가치관, 상호활동, 계급의식 등이 계층구분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이은정 · 이은영, 2002). 가장 대표적인 가계의 계층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은 가계의 소득이다. 가계소득계층은 가계의 총소득 즉,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하여 일정소득의 같은 범주 안에 있는 가계로 소득계층을 구분할 수 있다. 즉,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경우 단순히 소득의 범주를 4분위, 10분위 등과 같이 전체 소득을 25%, 10% 등으로 계층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으며, 가구원수가 가구별로 상이하므로 가구원수에 따른 균등화된 소득을 도출하는 경우도 있다.

가계의 계층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소득을 고려해볼 때, 소득계층의 실태와 특성에 관한 분석에 의하면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저소득층을 중위소득의 50%, 중산층을 중위소득의 50~150%, 부유층을 중위소득의 150%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류상영 · 강석훈, 1999). 이는 상대적 빈곤개념에 입각한 소득계층 구분방법으로, 실제적 빈곤선 설정방법은 국민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을 빈곤선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한편, 가계의 소득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경우, 가구별로 가구원의 차이가 있으므로 가구 소득을 가구동등화지수(Equivalence Scale)¹⁾를 고려하여 가구소득을 변형하여 분석하기도 한다(김진욱 · 박창원, 2001).

1) 가구동등화지수 = 가구소득 / $\sqrt{\text{가구원수}}$ (김진욱, 박창원, 2001)

2) 가계소득계층의 분류

가계의 소득계층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중산층 그리고 고소득층으로 크게 구분되어 질 수 있다. 저소득층을 정의하기 위하여 흔히 사용하는 최저생계비 (Minimum Living Standard)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며, 최저생계비는 절대빈곤여부를 판단하는 선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최저생계비는 빈곤선(Poverty Line)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저소득층은 소득계층 구조에서 하위를 나타내는 계층으로 연구목적에 따라 영세민층, 빈곤층, 또는 빈민층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다양한 목적과 학문적 행정적 필요성에 의하여 상이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빈곤층의 식별을 위하여 사용되는 빈곤선에는 절대적, 상대적 그리고 법적, 행정적 기준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저소득층은 가족구조 측면에서 노인가구, 여성세대주 가구, 청년 세대주 가구 등 비노동인구가구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저소득층은 가구 수 증가 혹은 가족수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한 나라의 분배형태에 영향을 미치며, 정부의 조세와 이전소득을 포함한 정책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김철희, 2003).

소득계층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는 중산층이라는 용어도 널리 사용하고 있다(한상진, 1987). 중산층이라 분류된 집단이 단순한 통계적 범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의미한 실천적 성격을 공유하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중산층은 일반적으로 국가경제를 주관하는 대표적인 집단일 뿐 아니라, 경제 환경에 가장 민감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의 가장 두터운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단의 성향을 파악하고 재무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가계재무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고소득층이란 소득을 기준으로 한 사회적 상층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통계청(2001)은 전 국민 중 월평균 소득 400만원 이상의 상위 20%이내 집단(소득 5분위)을 가장 높은 소득계층으로 구분하고 있다(이은정·이은영, 2002). 일반적으로 사회계층구분의 기준이 여러 연구자마다 모두 다르고, 공유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기준이 필요하다.

Ⅲ. 선행연구고찰

재무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현재의 재무상태를 안정적으로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는가? 혹은 현재보다 더 나은 재무구조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개념을 파악하려고 시도를 해 왔다. 가계재무상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는 위기상황을 유발하는 요인의 증가만큼 증가하지는 않는 것 같다. 1980년대 미국가계의 파산율은 실질소득의 증가와 무관하게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의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수준과 비상사태에 대한 그들의 경제적 대비수준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Hira, Fanslow & Titus, 1989).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주택이나 교육자금 등을 제외한 위기상황 대비에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다(임정빈, 1986). 따라서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위해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연구들을 그 연구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연구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재무구조 분석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가족의 생애주기를 구분하여 분석한 몇몇 연구들이 있다. Davis와 Carr(1992)는 생애주기단계를 초기단계, 확대단계, 축소단계 그리고 은퇴단계로 구분하고 이들의 재무계획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각 생애주기에 따라 재무계획이 다르며, 특히, 은퇴연령 단계의 재무계획은 기타 다른 생애주기단계에 비해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재무관리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노윤주(1996)는 도시 근로자가계를 대상으로 가족생활주기별 소비지출액과 구성비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가족생활주기가 비목별 소비지출액과 구성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평균소비성향, 월평균 비목별 소비지출액과 소비지출 구성비가 변화함을 보여 주었다. 또한, 가계소비지출액 중 외식비 지출이 10%에 달하며, 학령기 자녀를 둔 가계의 교육비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노년기 가계의 보건의료비의 비중이 다른 주기의 가계에 비해 높음을 밝혔다.

배희선·최현자(1996)는 가정생활주기별로 농가주부의 자원과 요구, 화폐관리 행동, 자녀교육비 대비행동 및 노후준비행동을 중심으로 한 재무관리행동 그리고 재정만족도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가정생활주기간에 이 요소들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대부분의 주기에서 주기별로 체계론에 근거한 개념적인 틀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주기별로 화폐관리행동과 자녀교육비 대비행동 그리고 노후준비행동과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주기별로 가족체계의 투입요소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재무관리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양정선(1997)은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금융자산액, 실물자산액, 총자산액, 총부채액, 순자산액과 재무비율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실물자산액, 총자산액, 순자산액과 일부재무비율이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이은실·최현자(1998)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가계의 자산선택행동을 포트폴리오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소비자포트폴리오의 구성과 구성요소별 보유액 및 보유비중을 중심으로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포트폴리오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포트폴리오 구성은 생활주기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즉, 형성기에서 첫 자녀 미취학기까지 포트폴리오 구성의 다양성이 증가하다 노년기로 갈수록 보유자산의 종류가 줄어들어 평균 1.3종류의 자산만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트폴리오 평균보유액에 있어 젊은 층에서는 주식 보유액이, 노년층에서는 사채보유액이 은행저축액 다음으로 크게 나타났

다. 또한, 포트폴리오 구성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노년기 단계에서 82%가 부동산자산의 비중임을 확인하고 유동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이 요구됨을 밝혔다.

정운영·한경미(2004)는 가족생활주기별로 가계의 비상자금의 적정도 수준과 이 비상자금 적정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비상자금 적정도의 수준은 유의하며, 비상자금 적정도 수준은 부채, 보험액, 주거소유 등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러한 영향요인은 각 주기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문숙재·정순희·여윤경(2002)은 가구주 연령에 따른 가계의 순자산 규모의 추정에 생애주기모형을 이용하여 순자산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은 가계, 고소득 가계, 은행권 저축이나 보험권 저축, 투자자산과 같은 자산을 소유한 가계, 주택을 소유한 가계, 대도시 거주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많은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밝혔으며,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주택 소유권은 가계의 순자산 규모를 증가시키는 강력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채의 소유는 가계의 순자산 규모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구주의 연령은 가계재무관리행동 영역의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가계를 가구주의 연령으로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로 이분화하여 가계 재무구조를 비교한 연구들이 있다. 김연정(1998)은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가 보유한 재무비율을 통하여 재정상태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연령가계의 재정상태를 결정하는 변수는 차이를 보였으며, 가계의 지불능력을 평가하는 총자산/총부채도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쳐 재무설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냈다.

임정빈·김윤희(2000)는 1980년부터 1998년까지 한국경제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개별가계의 소득 및 소비지출상황의 많은 변화과정 중 노인근로자가계의 전

반적인 변화추이를 비노인가계와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소득액 및 소득구조와 소비지출액 및 소비지출구성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인가계는 총 소득액이 약 3.2배, 비노인가계는 약 3배가 증가하였으며, 노인가계의 재산소득은 비노인가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총 소비지출은 노인가계 약 2.2배, 비노인가계 약 2.3배가 증가하였으며, 비노인가계의 불규칙적인 증감현상을 밝혔다.

정순희·김현정(2002)는 노인을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로 구분하여 이 두 집단간의 소득 충분성, 지출 충분성, 자산 충분성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취업노인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한 비취업노인가계의 재정상태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소득 충분성, 지출 충분성, 자산 충분성을 나타내는 측정도구들에서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가구주연령, 가구주 성별, 가족원수, 소득원수, 교육년수, 거주지역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에서도 두 집단간의 차이를 밝혔다. 또한, 소득이나 지출뿐만 아니라 자산부문에서도 비취업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보다 더 낮은 재정상태에 있음을 밝혔다.

한편, Hong과 Swanson(1995)은 가계소득, 비상금적정도, 소득에 대한 부채비율을 사용하여 여성노인의 재무상태를 평가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여성노인들의 특성에 따른 재무지표의 차등적인 적용을 강조하였다. Hogarth(1991)는 은퇴가계 중에서 저축형과 부채형을 조사하고, 저축패턴과 부채패턴의 결정요소를 평가하였다. 그는 대부분의 가계가 상당한 기간동안 저축을 하며, 장수에 대비한 예방과 미래 건강관리비용 그리고 유산을 남기길 바람을 밝혔다. Hatcher(1997)는 노후소비생활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노후 소비지출액을 소득, 직업, 학력, 건강상태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은퇴 이후에도 은퇴이전의 생활주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락한 은퇴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은퇴이전 소득의 약 70%정도가 요구된다고 한다(여

윤경, 2003). 즉, 이를 위해 은퇴기 이전 가계들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소멸되는 것을 대비하여, 자산을 축적해야 한다.

2. 가계보유자산에 따른 연구

가계 보유자산에 따른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김혜련·최현자(1999)는 1996년 한국가구 패널조사를 이용해 주거보유형태에 따라 가계의 유형별 소득과 자산의 규모 및 소비지출패턴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가계의 유형별 소득과 순자산의 규모 그리고 소비지출패턴은 주거보유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가계 유형별 가계소득과 자산은 가계의 소비지출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달랐으며, 소비지출에 미치는 근로소득의 효과는 순자산의 효과보다 크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성영애(1996)의 도시근로자가계의 부채부담추이 분석에서는, 1982년부터 1992년까지 도시가계의 부채부담정도를 추정하여 부채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1982년에서 1992년까지 전도가계는 월평균 가계소득의 10~13%내외를 부채상환에 쓰고 있었으며, 도시가계의 30~49%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채보유가계 중 월평균 가계소득의 25~39%정도를 부채상환에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채은석·성영애(2000)는 부채가계의 객관적 부채부담 지표 및 기준설정을 위한 주관적 부채부담과 관련한 요인을 분석하여 객관적 부채부담이 주관적 부담을 가중 시키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재무비율과 관련한 준거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월평균 상환액 20만원, 소득대비 월평균 상환액 0.2, 부채잔액 1,500만원 이상을 기점으로 주관적인 부채부담이 가중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가계가 부채부담을 더 느끼며, 사채를 이용한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들보다 더 부채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계 및 확대기 가계의 주관적인 부채부담이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더 크다는 결과를 통해, 이들에 대한 객관적인 부채지표의

조정을 통한 심리적 부채부담의 감소와 같은 부채관리교육 및 상담의 필요성이 높음을 시사하였다.

최현자(2001)는 다기간자원배분양식의 분석을 통해 가계부채부담의 임계수준을 파악하여 가계의 과도한 신용이용을 방지하고, 가계재무상태의 왜곡을 가져오는 부채부담수준을 파악하여 가계가 추가적인 부채사용을 자제해야하는 부채상한선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부채부담이 있는 가계는 조사대상가계의 83%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전체가계 7.3%는 부채부담이 40%를 넘어섰고, 이들의 평균 부채부담이 61.7%임을 밝혔다. 또한 가계의 부채부담이 소비보다는 저축행동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의 부채상한선은 25%로 이 수준을 초과하여 부채부담을 하게 되면 가계의 저축이 불가능해지며, 40%를 초과하는 경우 소비지출 및 소비구조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음을 밝혔다.

Fan, Chang과 Hanna(1992)는 소득변화에 따른 부채비율을 추정하였다. 적절한 부채사용은 재무설계 또는 재무상담시 중요한 지표가 되며, 향후 가계재무관리상에서의 역할이 보다 중시될 것이다(윤정혜 외 6명, 2001). 따라서 가계재무구조분석을 위해서는 부채관련 비율 및 지표의 분석은 그 범위를 확대시켜나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Fan, Chang과 Hanna(1997)는 가계가 예상밖의 지출에 대비하기위해, 적정수준의 비상금을 위한 최선의 저축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들은 위급한 상황에 적절한 유동자산은 2~6개월의 생활비이며, 가계가 보유해야하는 유동자산은 가족의 상태와 직업유형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3. 가계재무비율에 따른 연구

가계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분석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안승철·김년희(2001)는 도시가계를 중심으로 재무구조를 파악하고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재무비율로 측정하여 각 준거기준을 충족하는 가계와 미달되는 가계를 대상으로 영향력있는 변수를 밝히고자 하였다. 유동자산은 경제적 만족감, 월평균 가계소득 및 가처분소득 변인이, 실물자산은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계 및 소득원수가, 순자산인 경우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계, 소득원수 및 월평균 저축이 가장 큰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는 유동성의 경우 학력 및 전세가계와 부적인 관계를, 부채비율은 소비지출과 정적인 관계를, 자산축적은 전세가계, 자녀교육기 및 주관적 경제전망, 저축과는 부적인 관계에서 각각 재정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집단에 포함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미경(2001)은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가계를 근로소득자 가계와 자영업자 가계로 구분하여 가계의 재정상태를 비교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정상태 측정을 위한 재무비율로 유동성비율, 부채부담 재무비율, 자본축적 재무비율로 구분하고 두 집단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소득대비 소비비율은 근로소득자가 더 높으며, 유동성비율은 단기 및 장기 유동성비율의 준거기준을 만족시키는 정도가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채부담비율의 경우 두 집단 모두 준거기준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본축적비율에서도 근로소득자의 준거기준 만족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재정상태가 더 양호함을 보였다.

성영애(2003)는 가구주 직업에 따른 재무구조와 직업에 따른 연령별 재무구조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가구주의 직업은 봉급생활자, 자영업 및 자유업종사자, 농림수산업자 및 비정규직 종사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입지출상태에 있어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가계가 유사하고 수입지출 상

태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산부채상태는 비정규직종사자의 경우가 가장 열악하고 농림수산업자의 부채상환능력이 가장 낮으며, 비정규직 종사자가계가 유동성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현자 외 4명(2003)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조사된 한국가구패널조사(KHPS)의 6차자료와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1998년), 통계청의 도시가구 소비실태조사(1996년) 및 도시가계조사(1998년)을 사용하여 가계재무상태 평가 지표들의 준거를 설정하였다. 안정성지표와 성장성지표를 구분하였으며, 연구결과 안정성지표에서는 소득의 90%이상을 소비지출에 할당하면 경제적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며, 가계금융자산은 최소 현재생활수준을 1개월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보유하여야 하며, 월납입 보험료는 월평균소득의 20%가 적정수준이며, 월평균 부채상환액이 월평균 가처분소득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총 자산의 80%이내의 부채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성장성지표로는 소득의 50%이상을 저축해야하며, 실물자산은 총자산의 90%를 넘지 않아야하며, 유동성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어 후속연구로 성영애 외 4명(2004)은 가계재무의 안정성과 성장성 평가지표의 충족여부에 따라 가계를 분류하여 각 유형의 가계가 갖는 가계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가계특성은 안정성지표상의 특성과 성장성지표상의 특성을 포함한 가계재무비율특성과 가계재무비율을 구성하는 가계경제요소상의 특성인 재무특성을 포함하였다. 연구결과,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추지 못한 가계가 가구주의 연령이 낮은 가계가 아니라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안정성과 성장성의 부족이 자산축적의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자산을 획득하고 운영한 결과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4. 가계소득계층에 따른 연구

소득을 기준으로 가계를 구분하여 가계재무구조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며, 일반적으로 소득계층구분 연구는 소비지출구조 분석이 대부분이다. 가계소득계층에 따른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배미경(1998)은 고소득과 저소득층을 구분하여 이들 두 집단간의 소비지출을 비교분석하고, 소득수준별로 8개 집단에 따른 지출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고소득집단과 저소득집단의 소비결정함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소득재분배효과와 관련된 경제정책을 마련할 때 저소득층의 가계의 특성을 보다 세분화하여 연령이나 기타 인구사회학적인 집단으로 분류하여 복지프로그램의 적용성 근거를 마련해야함을 강조하였다.

소연경(2000)은 도시가계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구조 분석에서 가계소득을 근거로 하위30%를 저소득층, 상위20%를 고소득층, 나머지를 중간소득층으로 구분하고 소득계층별로 IMF 전후 가계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근로자가구의 IMF 전후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구성비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IMF 전보다 15%, 중간소득층은 11.6%, 고소득층은 9.5% 감소했으며, 소득계층마다 소비지출의 감소로 인한 구성비의 변화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이를 통해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지출 규모의 변화는 사회의 경기변동에 따라 매우 큰 폭으로 변동하는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성림(2002)은 소득 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수준과 분포 및 변화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소득계층을 10분위로 구분하였다. 10분위로 계층을 구분한 것은 비교적 세밀한 지출 분포를 알 수 있고, 대다수의 소득 분배연구에서 10분위 구분을 적용하고 있으며, 10분위로 구분할 경우 극상층과 극하층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중·하의 세 계층으로 보다 용이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상·중·하의 소득계층 구분은 하위1, 2, 3분위를 하층, 중간의 4분위부터 7분위까지를 중층, 그리고 8, 9, 10분위를 상층으로 하였다. 소득계층을 10분위로 구분하기 위하여 월평균 가계소득을 가장 작은 값부터 시작하여 크기 순으로 나열한 후 집단의 크기가 같도록 10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승신(2003)은 가계의 재무구조가 사교육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소득계층별 접근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3차년도인 2000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 구분을 중위소득인 50~150%에 속하는 계층을 중산층으로 하고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저소득층, 중위소득의 150% 이상을 고소득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저소득층의 가계재무구조와 상태는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예측되어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부족하고 연간 총소득에 비해 상환해야하는 부채의 규모가 매우 높아 가계의 효율적인 지출 및 소비행동이 어려우며 미래 예기치 못한 위험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중소득층은 안정적인 부채상환능력과 자산증식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나 연간소득에 비해 부채부담이 약간 높았고, 고소득층은 연간총소득에 비해 부채부담이 약간 높으나 부채에 비해 총자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채상환에 어려움이 없으며 가계의 예기치 못하는 위험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유동자산의 확보가 이루어진 재무상태라 평가하였다.

이처럼 소득계층구분에 의한 재무구조분석연구는 대부분 소비지출 관련한 비교분석연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지출구조 뿐만 아니라 가계의 전반적인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산·부채구조 및 여러 재무비율을 소득계층별로 비교분석하여 바람직한 재무구조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별 가계재무구조 및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재무비율에 따른 가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소득계층별 재무구조를 파악한다.

- 1-1) 소득계층에 따른 소득·지출관련 변수들의 차이를 분석한다.
- 1-2) 소득계층에 따른 자산·부채관련 변수들의 차이를 분석한다.

【연구문제 2】 소득계층별 재무비율의 차이를 분석한다.

- 2-1) 소득계층에 따른 소득·지출비율의 차이를 분석한다.
- 2-2) 소득계층에 따른 유동성비율의 차이를 분석한다.
- 2-3) 소득계층에 따른 자산·부채비율의 차이를 분석한다.

【연구문제 3】 가계재무비율 준거기준 만족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 3-1) 소득·지출비율 준거기준 만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 3-2) 유동성비율 준거기준 만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 3-3) 자산·부채비율 준거기준 만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2. 자료 및 측정도구의 구성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재무구조를 분석하고 각 가계의 특성 및 소득계층에 따라 가계재무비율을 비교하고, 이에 따른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이하 KLIPS)’ 5차 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5,000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02년도 5차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KLIPS는 직접면접을 통해 설문이 이루어졌으며, 면접원은 주로 가구주 본인이나 가구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면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5차년도 조사당시 평균 방문횟수는 3.6회이며, 이들 중 절반이상이 4회 이상 방문하였다. KLIPS 자료는 크게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한 가구용 자료와 가구에 속한 만15세 이상의 가구원을 조사 대상으로 한 개인용 자료로 구분된다. 가구용 자료의 내용은 가구원의 인적 사항, 변동가구원 관련 사항, 가족관계와 세대간 경제적 자원교류, 주거상태, 자녀교육과 보육, 가구의 소득과 소비, 가구의 자산과 부채, 가구의 경제 상태 및 가계의 부담을 느끼는 소비항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인용 자료는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고용상의 특성, 근로시간, 직무만족 및 생활만족, 구직활동, 노동시장 이동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02년 5차년도 조사는 2002년 4월~9월에 실사가 이루어 졌으며, 성공한 유효표본가구는 4,298가구이며, 응답가구원은 10,965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용 자료와 개인용 자료를 통합하였으며, 배우자가 있는 가계는 배우자 자료도

통합하였다. 또한, 소득계층을 구분하기 위해 연간 총 소득이 2002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1인 가구 최저생계비²⁾인 4,144,944원(345,412원 ×12개월) 미만 가계는 연구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제외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762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재무구조를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 및 측정도구는 사회인구학적 변수, 재무변수 그리고 기타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가구주 연령, 자녀수, 가구원수,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취업여부, 가구주 직종, 배우자 유·무, 배우자 취업여부, 그리고 거주지역을 채택하였다. 교육수준은 대졸 여부로 구분하였으며, 가구주의 직업은 전문직과 비전문직, 거주지역은 서울특별시와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재무변수는 소득·지출 변수와 자산·부채 변수로 크게 구분하였다. 소득·지출변수에는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월평균소비지출액 그리고 월저축액, 가계흑자율을 포함시켰다. 소득·지출변수의 구성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소득에는 금융기관이자 및 투자소득, 비금융기관 이자 수입, 주식 및 채권매매차익, 배당금 그리고 기타 금융소득을 합한 액수를 조사하였다. 또한 부동산소득은 월세 등 임대료, 부동산매매차익, 토지임대, 권리금 및 기타 부동산소득의 합을 제시하였다. 이전소득에는 정부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친인척 보조금 그리고 기타 이전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소득으로는 보험금, 퇴직금, 증여 및 상속 그리고 기타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소

2) 최저생계비는 매 5년마다 계측조사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12월1일까지 다음년도 최저생계비를 공표(기초법제5조), 1999년도에 계측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동 계측결과와 2001년도 최저생계비를 토대로 그동안의 수급권자 및 일반국민의 생활실태변화 등을 고려하여 2002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함(보건복지부, 2001, 「2002년도 최저생계비」).

득의 합으로 총소득을 계산하였다.

월 소비지출액은 식비, 외식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차량유지비, 주거비, 경조사비, 보건의료비, 문화비, 내구재, 통신비, 용돈 그리고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가계의 흑자율은 월평균 가계소득에서 월평균 소비지출비를 뺀 값이 0이상인 가계를 흑자가계라 정의내리고 흑자가계에 속한 가계의 비율로 나타냈다.

또한, 자산·부채변수로는 실물자산보유액, 금융자산보유액, 부채보유액, 월부채상환액, 순자산액 그리고 투자자산 보유액을 선정하였다. 실물자산은 소유 부동산의 시가총액이며, 금융자산은 은행예금, 주식채권신탁, 저축성보험 그리고 기타 금융자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채와 부채 월상환액은 금융기관부채, 비금융기관부채 그리고 기타 부채로 구성되어 있다. 순자산액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으로 계산하였고, 투자자산보유액은 가계의 금융자산 중 투자 성향이 있는 주식과 저축보험 그리고 계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기타변수로는 현재 가계경제와 우리나라의 경제여건 및 1~2년 후 가계경제와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에 관한 가구주의 평가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의 1점은 '매우 어렵다' 5점은 '매우 여유가 있다'로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현재와 미래의 평가를 합산하여 가계경제평가와 우리나라 경제여건 평가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Lytton, Garman & Porter, 1991; DeVaney, 1993; 양정선, 1997; 최윤지·최현자, 1998; 안승철·김년희, 2001; 최현자·이희숙·양세정·성영애, 2003)에서 제시된 재무비율을 기본적으로 참고하고, 전반적인 가계재무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변수들을 포함하여 가계재무비율을 정의하였다. 우선, 가계의 재무구조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무비율을 소득·지출비율, 유동성비율, 자산·부채비율로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고, 그 하위영역으로 총 7가지 비율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각 재무비율의 준거기준은 선행

연구들을 참조하여 우리나라 가계특성에 맞는 준거기준을 제시한 최현자 외 3명(2003)의 연구를 참고하여 준거기준을 선정하였다. 재무비율의 자세한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우선, 소득·지출비율에서 가계의 현재 소비성향을 측정하고자 월평균가계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비지출액(Ratio1)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만족시키는 준거기준은 0.9미만으로 정의하였다. 가계의 소득 중 어느 정도를 저축하는지 측정함으로써 저축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비율로, 연간 총소득에 대한 연간 총저축액(Ratio2)을 측정하였으며, 준거기준은 0.1이상이다.

<표 2> 가계재무비율 정의 및 측정방법

재무비율	개념	Guideline
소득·지출비율		
Ratio1 : 월평균소비지출액/월평균가계소득	소득에 대한 소비지출비율로 소비성향을 측정	0.9미만
Ratio2 : 총저축액/총소득	저축률을 나타내는 지표	0.1이상
유동성비율		
Ratio3 : 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	단기유동성비율 측정	1.0이상
Ratio4 : 금융자산/총자산	장기유동성비율 측정	0.1이상
자산부채비율		
Ratio5 : 금융자산/총부채	금융자산을 이용하여 총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0.1이상
Ratio6 :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	소득 중 부채를 위해 지불되는 비율	0.25이하
Ratio7 : 투자자산/순자산	순자산 중 투자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로 자산증식을 목적을 얼마나 잘 달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은퇴시 비율이 높아져야 함	0.2이상

유동성(liquidity)이란 현금화 될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따라서 쉽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을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라고 부른다(김철중, 2000). 유동성 비율(liquidity ratio)은 원래 기업의 재무관리에서 단기채무 지급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비율로 처음 사용되었다. 즉, 단기채무의 위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비율이다. 따라서 가계의 재무관리에서는 가계의 소득이 중단되었거나, 가계가 파산되었을 경우 경제적 위험을 견딜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유동성비율은 단기유동성비율과 장기유동성비율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단기유동성 비율은 월평균가계소득에 대한 금융자산의 비율(Ratio3)로 소득을 상실했을 경우 금융자산을 확보해야 하는 준거기준은 1.0이상이 된다. 장기유동성은 총자산에 대한 금융자산의 비율(Ratio4) 또한 총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계의 장기유동성을 측정하는 비율로 준거기준은 0.1이상이 된다.

자산·부채비율은 금융자산을 이용하여 총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가계의 재정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총부채에 대한 금융자산의 비율(Ratio5)로 그 준거 기준은 0.1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한편, 매월 지출해야하는 부채상환액이 가계소득 중에 차지하는 비율로 부채부담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월평균 소득에 대한 월평균 부채 상환액 비율(Ratio6)을 측정하였으며, 준거기준은 0.25이하로 낮을수록 가계가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장기적인 자본축적을 살펴볼 수 있는 순자산에 대한 투자자산비율(Ratio7)을 측정하였으며, 준거기준은 0.2이상으로 높을수록 자본축적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각 분석 목적에 맞추어 SPSS Window(Version1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연구문제 1>의 소득계층별 가계채무구조를 파악하기위하여 기초통계인 빈도, 평

균값, 표준편차 및 소득계층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카이검증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소득계층에 따른 가계재무변수들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고, 보다 정확하게 집단간의 차이를 보기위해 사후분석으로 Duncan의 다중범위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의 소득계층에 따른 소득·지출비율, 유동성비율, 자산·부채비율의 차이를 분석하기위해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집단간의 차이를 보기위해 사후분석으로 Duncan의 다중범위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의 가계의 특성에 따른 재무비율의 준거기준을 만족시키는데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위해 Logit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변수의 변화에 따른 확률을 알아보기 위해 Excel Program을 이용하여 그 값을 추정하였다.

3. 연구모델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특성별 가계재무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각 재무비율에 적절한 준거기준을 설정하고 준거기준을 만족시켜주는 집단에 속할 확률을 1, 준거기준을 만족시켜주지 못한 집단에 속할 확률이 0으로 정의하였다. 이 같은 준거기준 만족여부는 이항변수(Binomial Variable)의 형태이므로 이에 적절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재무관련변수 그리고 기타변수들이 투입되고 종속변수는 재무비율준거기준 만족여부라는 이항변수이므로 Logit 회귀모형에 의해 분석하였다. Logit 회귀모형 구성을 위해 몇 가지 모델을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본 연구목적에 가장 적합한 연구모형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으며, 기타 연구 분석에서 제외된 연구모형2의 결과는 <부록 2>에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구체적인 모형은 다음과 같다.

$$\log\left[\frac{P_i}{1-P_i}\right] = \beta_0 + \beta_1X_1 + \beta_2X_2 + \beta_3X_3 + \beta_4X_4 + \beta_5X_5 + \beta_6X_6 + \beta_7X_7 + \beta_8X_8 + \beta_9X_9 + \beta_{10}X_{10} + \varepsilon_i$$

P_i : 가계재무비율 준거기준 만족 확률

X_1 : 가구주 연령 - 소득3분위(=1)

X_2 : 자녀수 - 소득4분위(=1)

X_3 : 가구주교육수준(대졸=1) X_7 : 순자산 보유여부(순자산>0=1)

X_4 : 가구주 직업(전문직=1) X_9 : 가계경제여건평가

X_5 : 거주지(서울=1) X_8 : 흑자가계여부(유=1)

X_6 : 소득계층(준거집단=소득1분위) X_{10} : 우리나라 경제여건평가

- 소득2분위(=1)

또한, 각 변수의 변화에 따른 확률을 알아보기 위해 Excel Program을 이용하여 그 값을 추정하였다. 구체적인 모형과 각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다. 단,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각 변수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보기 위해 독립변수들의 값을 평균값<부록 1>으로 대치하였다.

$$\frac{\partial P}{\partial X_i} = \beta_i \cdot \frac{e^{X\beta}}{(1 + e^{X\beta})^2}$$

$$X_{\beta} = \beta_0 + \beta_1 \text{가구주 연령} + \beta_2 \text{자녀수} + \beta_3 \text{가구주 교육수준} + \beta_4 \text{가구주 직업} + \beta_5 \text{거주지}$$

$$+ \beta_6 \text{소득계층} + \beta_7 \text{순자산 보유여부} + \beta_8 \text{흑자가계여부} + \beta_9 \text{가계경제여건 평가}$$

$$+ \beta_{10} \text{우리나라 경제여건 평가}$$

$$\hat{P} = \frac{e^{X\beta}}{1 + e^{X\beta}}$$

$$\hat{P} = \text{가계재무비율 준거기준 만족 확률}, \quad X = \text{가구주연령 외}, \quad \beta = \text{logit 파라미터}$$

IV. 연구결과

1. 소득계층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차이

본 연구의 조사대상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소득계층별로 차이를 검증하기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카이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가계재무구조의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가계의 총소득을 상위 25%, 50%, 75%로 구분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계집단은 4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즉, 총소득 하위25%가계집단은 소득1분위집단, 50~75%가계집단은 소득2분위집단, 25~50%가계집단은 소득3분위집단 그리고 총소득 상위25%가계집단은 소득4분위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조사대상가계는 총 3,762가계이며, 소득으로 구분한 소득1분위집단 가계는 940명, 소득2분위집단 가계는 950명, 소득3분위집단 가계는 967명, 소득4분위집단 가계는 905명이다.

조사대상 전체 가계의 가구주 연령은 평균 46세이며, 소득1분위집단 가계는 53세, 소득2분위집단과 소득3분위집단은 각각 45세 그리고 소득4분위집단은 47세로 나타났으며, 이들 소득계층별 가구주 연령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자녀수는 전체 조사대상가계의 평균은 1.45명이며, 소득계층별로는 소득1분위집단가계가 1.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4분위집단 1.85명, 소득3분위집단 1.66명, 그리고 소득2분위집단 1.44명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자녀수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조사대상가계의 총 가구원수는 평균 3.5명이며, 소득계층별로는 소득4분위집단이 3.63으로 가장 낮았으며, 소득1분위집단이 4.3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각 소득분위집단별 가구원수의 차이는 유의한 수준이었으며 즉, 소득이 높은 집단의 가구원수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 소득계층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차이분석

빈도(%)

변 수	전체 (n=3762)*		소득1분위 (n=940)*		소득2분위 (n=950)*		소득3분위 (n=967)*		소득4분위 (n=905)*		F값
	M	(S.D.)	M	(S.D.)	M	(S.D.)	M	(S.D.)	M	(S.D.)	
가구주연령	47.55	(12.67)	53.43	(14.89)	45.41	(12.39)	44.76	(10.61)	46.67	(10.30)	101.191***
자녀수	1.47	(.96)	1.92	(.97)	1.44	(.93)	1.66	(.87)	1.85	(.81)	185.005***
가구원수	3.50	(1.26)	2.74	(1.27)	3.44	(1.22)	3.78	(1.09)	4.06	(1.03)	223.134***
가계경제 여건평가	3.93	(1.10)	4.31	(1.01)	3.97	(1.07)	3.81	(1.08)	3.63	(1.12)	67.457***
우리나라 경제여건평가	3.54	(1.19)	4.31	(1.01)	3.58	(1.16)	3.50	(1.23)	3.46	(1.24)	3.508*
구 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χ^2
가구주교육수준											
고졸이하	2723	(72.4)	820	(87.2)	753	(79.3)	664	(68.7)	486	(53.7)	290.881***
대졸	1039	(27.6)	120	(12.8)	197	(20.7)	303	(31.3)	419	(46.3)	
가구주 취업여부											
미취업	718	(19.1)	348	(37.0)	158	(16.6)	114	(11.8)	98	(10.8)	272.804***
취업	3044	(80.9)	592	(63.0)	792	(83.4)	853	(88.2)	807	(89.2)	
가구주 직종											
전문직	178	(5.9)	16	(2.7)	21	(2.7)	44	(5.2)	97	(12.1)	81.480***
비전문직	2834	(94.1)	572	(97.3)	762	(97.3)	796	(94.8)	704	(87.9)	
배우자 유무											
무	746	(19.8)	364	(38.7)	195	(20.5)	119	(12.3)	68	(7.5)	332.139***
유	3016	(80.2)	576	(61.3)	755	(79.5)	848	(87.7)	837	(92.5)	
배우자 취업여부											
미취업	1569	(52.0)	329	(57.1)	431	(57.1)	428	(50.5)	381	(45.5)	28.746***
취업	1447	(48.0)	247	(42.9)	324	(42.9)	420	(49.5)	456	(54.5)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897	(23.8)	202	(21.5)	186	(19.6)	226	(23.4)	283	(31.3)	39.995***
기타	2865	(76.2)	738	(78.5)	764	(80.4)	741	(76.6)	622	(68.7)	

* 결측치로 인해 빈도수가 다를 수 있음.

* p < .05, **p < .01, ***p < .001

가계의 경제적 여건평가점수는 전체조사대상가계의 평균이 3.93이며, 소득계

층별로는 소득1분위집단 가계가 4.31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4분위집단 평균이 3.63으로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우리나라 경제여건 평가점수 또한, 조사 대상 전체평균은 3.54이며, 소득1분위집단의 평균이 4.31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 4분위집단 평균은 3.46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소득계층별 차이를 나타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가계경제여건평가와 우리나라 경제여건평가 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득이 높은 가계의 경제여건 평가가 소득이 낮은 가계보다 낮은 것을 볼 때, 고소득가계의 경제적 욕구수준이 더 높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가 72%, 대졸이상이 28%의 분포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별로는 소득1분위집단은 13%, 소득2분위집단은 21%, 소득3분위집단은 31% 그리고 소득4분위집단 대졸자가 46%로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대졸 학력자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가구주 교육수준은 소득계층별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가구주의 취업여부는 전제가계 미취업 비율이 19%이었으며,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1분위집단의 미취업 비율은 37%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4분위집단은 11%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들 소득계층별 가구주 취업여부의 차이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직종은 전제가계 중 전문직 비율이 6%이며, 소득4분위집단의 전문직비율은 12%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소득2분위집단과 소득1분위집단은 가구주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2.7%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조사대상 가계 중 배우자가 있는 가계는 80%이며, 이들 배우자중 취업자는 48%로 나타났다. 소득이 가장 높은 소득4분위집단 가계는 93%가 배우자가 있으며, 이중 취업자는 55%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3분위집단 가계의 88% 배우자가 있으며, 50%가 취업자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2분위집단 가계는 21%가 배우자가 없는 가계이며, 배우자가 있는 가계의 배우자 취업비율은 43%로 나타났다. 소득1분위집단 가계의 61%가 배우자가 있으며, 이들 중 취업자는 43%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가계의 거주지역은 서울특별시 24%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 각각 22%, 20%, 23%, 그리고 31%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 각 소득계층별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 소득계층에 따른 가계재무구조 차이

가계의 재무구조분석을 위해 소득·지출관련변수와 자산·부채관련변수를 분석하였다. 소득관련변수는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출관련변수는 월평균 소비지출액, 월평균 저축액 그리고 가계흑자율을 포함하고 있다. 자산변수로는 실물자산보유액, 금융자산보유액, 부채변수로는 부채보유액과 월평균부채 상환액, 순자산 보유액 그리고 투자자산보유액을 포함하였다. 또한, 가계의 소득계층에 따라 가계재무구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독립표본 t-test를 수행하였다. 일원분산분석의 경우, 사후검정으로 Duncan의 다중범위 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 가계재무구조분석을 위한 재무관련 특성 중 월평균 부채상환액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무변수들이 소득계층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가계의 재무관련 특성 및 소득계층별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조사대상가계의 총 소득은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및 이전소득 등을 모두 합한 것으로 연간 평균 2,84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소득 1분위집단 가계의 총소득 평균은 938만원, 소득2분위집단은 1,847만원, 소득3분위집단은 2,826만원 그리고 소득4분위집단은 5,888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소득계층별 차이는 유의하였다.

가계소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근로소득은 연 평균 2,554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는 소득1분위집단 894만원, 소득2분위집단이 1,756만원, 소득3분위집단이 2,683만원 그리고 소득4분위집단이 4,689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의 차이는 소득계층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소득계층 구분에 근로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4> 소득계층에 따른 가계재무구조 차이분석

(단위 : 명, 만원)

	전체			소득1분위집단			소득2분위집단			소득3분위집단			소득4분위집단			F 값
	n	M	S.D.	n	M	S.D.	n	M	S.D.	n	M	S.D.	n	M	S.D.	
총소득 (년)	3762	2844	3046	940	938	287	950	1847	233	967	2826	349	905	5888	4924	720.182***
				a			b			c			d			
근로소득 (년)	3534	2554	1854	777	894	317	916	1756	322	952	2683	461	889	4689	2368	1493.348***
				a			b			c			d			
금융소득 (년)	344	472	868	53	292	331	63	283	357	86	288	443	142	735	1225	7.838***
				a			a			a			b			
금융기관	305	367	520	49	263	300	59	275	334	76	258	343	121	523	693	
비금융기관	28	718	825	4	390	288	3	359	425	6	427	145	15	995	1042	
주식/채권	19	1593	2329	1	1000	-	1	500	-	4	655	570	13	2011	2728	
배당금 및 기타	18	148	163	1	10	-	1	400	-	5	176	188	11	124	147	
부동산소득 (년)	361	2045	5846	77	389	304	57	610	574	67	779	763	160	3884	8416	10.269***
				a			a			a			b			
임대료	279	896	1383	59	431	307	47	565	543	55	782	679	118	1314	1958	
부동산매매차익	43	10796	13620	1	1000	-	3	1233	252	4	1810	1453	35	12923	14280	
토지임대	59	226	289	19	145	100	13	293	341	8	202	223	19	274	388	
권리금 및 기타	3	1667	2031	-	-	-	1	700	-	1	300	-	1	4000	-	
이전소득 (년)	1068	320	2273	401	254	295	235	177	322	222	169	314	210	767	5074	3.476*
				a			a			a			b			
정부보조금	382	58	152	200	67	127	69	77	255	49	33	114	64	28	85	
사회단체보조금	18	111	122	11	109	132	4	173	119	2	14	2	1	84	-	
친인척보조금	713	336	692	254	329	300	163	213	332	162	217	348	134	645	1408	
기타	132	591	6264	61	62	175	25	31	45	24	30	48	22	3306	15343	
기타소득 (년)	421	1020	2014	112	355	378	87	606	648	88	728	700	134	2035	3243	6.943***
				a			a			a			b			
소비지출액 (월)	3757	144	91	939	77	40	950	116	39.54	965	156	51	903	230	125	746.581***
				a			b			c			d			
식비	3761	34	18	940	24	12	950	32	14.05	967	37	15	904	44	22	
외식비	3761	6	8	940	2	4	950	4	6.74	967	7	8	904	11	10	
공교육비	3761	10	24	940	45	14	950	7	16.24	967	11	22	904	18	35	
사교육비	3761	12	25	940	2	8	950	8	13.05	967	14	20	904	24	41	
차량유지비	3761	14	16	940	5	10	950	11	12.06	967	17	16	904	24	18	
주거비	3761	14	11	940	11	10	950	12	8.04	967	15	12	904	18	13	
경조사비	3761	6	8	940	4	5	950	5	5.50	967	6	6	904	10	11	
보건의료비	3761	5	9	940	5	7	950	4	9.37	967	5	9	904	6	10	
문화비	3761	3	7	940	1	4	950	2	3.43	967	3	4	904	6	12	
내구재	3761	2	8	940	.45	2	950	1	5.69	967	2	7	904	4	12	
통신비	3761	11	7	940	6	5	950	9	5.80	967	12	7	904	15	8	
용돈	3761	20	23	940	9	11	950	16	14.59	967	22	18	904	36	32	
기타	3760	4	14	939	1	6	950	3	10.31	967	4	12	904	7	23	
저축액 (월)	3758	45	62	939	10	18	949	28	28.93	966	49	47	904	97	91	446.970***
				a			b			c			d			
후자가계비율 ¹⁾ (%)	3757	82	.38	939	55	.50	950	83	.37	965	92	.27	903	98	.13	279.526***
				a			b			c			d			

1) 후자가계비율 : 월평균가계소득-월평균 소비지출비 > 0

* p < .05, **p < .01, ***p < .001

	전체			소득1분위집단			소득2분위집단			소득3분위집단			소득4분위집단			F값
	n	M	S.D.	n	M	S.D.	n	M	S.D.	n	M	S.D.	n	M	S.D.	
실물자산 보유액	270	17002	23886	41	8239	7966	43	11804	10086	60	19150	32181	126	20604	25195	3.746*
				a			ab			b			b			
금융자산 보유액	3744	1692	4227	930	611	1846	949	1017	2249	964	1537	2471	901	3685	7298	103.352***
				a			b			c			d			
은행예금	2311	2024	4292	416	1096	2325	564	1299	2431	648	1674	2313	683	3522	6770	21.758***
주식채권신탁	233	2481	4252	13	2104	3096	34	2011	3151	58	1649	1644	128	3021	5258	
저축성보험	725	850	1235	67	465	776	167	610	567	230	775	1495	261	1168	1319	
기타	263	1760	3164	31	1737	2811	56	1121	1887	83	1482	2573	93	2400	4144	
총부채 보유액	3742	2217	7113	934	1677	10832	945	1422	3182	962	2015	4830	901	3829	7040	21.758***
				a			a			a			b			
금융기관	1504	3603	9706	297	3472	18503	370	2472	3741	421	3118	5896	416	5194	6745	1.069
비금융기관	116	1310	2012	21	946	811	28	833	630	28	1792	3661	39	1503	1288	
기타	716	3955	6277	174	3536	9051	153	2654	3702	165	3513	4039	224	5493	6135	
부채상환액 (월)	1470	58	660	287	22	26	354	107	1337	406	37	78	423	62	118	1.069
금융기관	1486	35	105	293	18	23	365	32	160	413	28	56	415	57	115	18.908***
비금융기관	116	234	2319	21	11	9	28	911	4721	28	25	46	39	17	21	
기타	184	41	81	40	25	30	42	26	27	55	51	135	47	56	51	
순자산 보유액 ²⁾	3724	694	10412	924	-754	11001	944	138	4909	959	704	8999	897	2761	14390	18.908***
				a			ab			b			c			
투자자산 보유액 ³⁾	1013	1602	3061	96	1149	2135	218	1039	1950	317	1229	2051	382	2347	4154	12.701***
				a			a			b			c			

2) 순자산 보유액 : 총자산-총부채

3) 투자자산보유액 : 주식+저축보험+계

* p < .05, **p < .01, ***p < .001

전체 금융소득은 344가계가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은 472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는 금융기관 이자와 투자소득이 평균 367만원으로 가장 많은 305명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비금융기관 이자수입은 보유자 평균 718만원, 주식 및 채권매매차익 1,593만원 그리고 배당금 및 기타금융소득은 148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1분위집단의 금융소득은 평균 292만원으로 53명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2분위집단의 금융소득은 63명이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283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3분위집단은 금융소득을 86명이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은 연간 288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4분위집단은 금융소득을 142명이 보유하

고 있으며, 이들의 금융소득평균은 735만원으로 나타났다. 총금융소득은 각 소득계층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사후검증결과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소득은 연간 평균 2,045만원이며, 이중 부동산 매매차익이 10,796만원으로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월세 등 임대료는 896만원, 토지임대는 226만원, 권리금 및 기타부동산 소득은 1667만원으로 나타났다. 각 소득계층별 부동산소득은 소득1분위집단은 보유자 77명으로 연간 평균 38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소득2분위집단은 부동산소득을 57명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은 연간 610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3분위집단은 보유자 67명 평균 77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소득4분위집단의 보유자 160명으로 평균 3,884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부동산 소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집단간 차이도 유의하였다. 즉, 소득4분위집단과 그 외 소득계층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이전소득은 전체 조사대상가계 중 1,068명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은 32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 중 가장 높은 평균은 친인척의 보조금으로 전체 가계의 713명이 보조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연간 평균은 336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계층별 이전소득은 소득1분위집단은 254만원, 소득2분위집단은 177만원, 소득3분위집단은 169만원 그리고 소득4분위집단이 가장 높은 767만원을 나타냈으며, 소득계층별 이전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기타 소득은 평균 1,020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소득계층별로는 각각 355만원, 606만원, 728만원, 2,035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소득계층간 기타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가계의 월평균소비지출액은 평균 144만원이며, 이중 식비가 34만원, 용돈이 20만원 차량유지비와 주거비가 각각 14만원의 평균을 나타냈다. 소득계층별로는 소득1분위집단은 77만원, 소득2분위집단이 116만원, 소득3분위집단이 156만

원 그리고 소득4분위집단이 23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가계의 월저축액은 평균 45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소득1분위집단 10만원, 소득2분위집단 28만원, 소득3분위집단 49만원 그리고 소득4분위집단이 97만원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월저축액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또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흑자가계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가계는 82%로 나타났으며, 각 소득계층별로는 소득1분위집단이 55%, 소득2분위집단 83%, 소득3분위집단 92% 그리고 소득4분위집단 98%로 나타났다. 즉, 소득수준이 높은 가계일수록 흑자가계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소득계층별 소비지출비의 증가보다 소득증가 폭이 더 높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사대상가계의 부동산 보유 시가총액인 실물자산 보유액은 270 보유가계의 평균이 1억 700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소득1분위집단이 41가계만이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 보유가계의 평균은 8,239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소득2분위집단은 43가계가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보유액 평균은 1억 1,804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3분위집단은 보유가계 60,보유가계 평균 1억9,150만원이며, 소득4분위집단은 126가계가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은 2억 604만원으로 나타났다. 실물자산보유액 또한 소득계층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금융자산보유액은 전체 조사대상가계의 평균이 1,554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장 많은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은 은행예금으로 평균 2,024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식, 채권, 신탁과 같은 금융자산은 233가계가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평균은 2,481만원으로 나타났다. 저축성보험은 725가계가 보유를 하고 있었으며, 평균 850만원으로 나타났고 기타 금융자산은 263가계가 보유를 하고 평균 1,76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계층별로는 소득1분위집단이 611만원, 소득2분위집단 1,017만원, 소득3분위집단이 1,537만원 그리고 소득4분위집단이

3,685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보유액은 소득계층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부채보유 총액은 평균 2,217만원이며, 보유부채 중 금융기관부채 보유가계들의 평균은 3,603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금융기관부채는 1,310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타 부채는 3,955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소득계층별 총 부채 보유액은 소득4분위집단이 3,829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2분위집단이 1,422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소득계층별 가계 총 부채 보유액은 통계적으로 유의한수준의 차이를 나타냈으며, 사후 검증결과 소득4분위집단과 기타 소득계층간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부채 월 상환액은 평균 58만으로 조사되었으며, 비금융기관부채 보유자 중 비금융기관 월부채 상환액은 234만원으로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소득계층별로는 소득1분위집단 22만원, 소득2분위집단 107만원, 소득3분위집단 37만원 그리고 소득4분위집단 62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가계의 총 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 보유액을 살펴보면 3,724가계가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가계의 평균은 694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소득1분위집단의 순자산 보유액은 보유가계 평균이 (-)75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소득2분위집단이 138만원, 소득3분위집단이 704만원 그리고 소득4분위집단이 2,761만원이었으며, 이들 소득계층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이며, 문숙재·정순희·여윤경(2002)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고소득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많은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한편, 가계보유 자산 중 투자성향을 나타내는 주식 및 저축보험과 계 등으로 이루어진 투자자산 보유액을 살펴보면, 전체 보유가계의 평균은 1,602만원이었다. 소득계층별로는 소득4분위집단이 가장 높은 2,347만원의 평균을 나타냈고, 소득2분위집단이 1,039만원으로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으며 소득계층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3. 가계재무비율 차이

가계의 재무구조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무비율을 소득·지출비율, 유동성비율, 자산·부채비율로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3가지 재무구조 하위영역으로 총 7가지 비율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계재무비율 차이

가계의 재무구조분석을 위해 7가지 재무비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가계재무비율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Duncan의 다중범위 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비율 차이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가계 재무비율 차이는 소득·지출비율 중 Ratio1(월평균소비지출액/월평균가계소득)과 Ratio2(총저축액/총소득)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유동성비율에서는 Ratio3(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 Ratio4(금융자산/총자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자산·부채비율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소비성향을 나타내는 Ratio1은 가구주연령 60대 이상가계가 0.796으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가계가 .632로 가장 낮았다. 또한, 연령집단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저축률은 가구주 연령이 낮은 가계일수록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즉, Ratio2는 가구주 연령 20대 가계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60대 이상 가계가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이들은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단기유동성비율 Ratio3은 가구주 연령이 높은 집단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즉, 60대 이상 가계는 보유한 금융자산으로 월평균 소득을 11개월 충당할 수준이 되었다. 총 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율을 나타내는 Ratio4는 20대 가계가 가장

<표 5>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계계무비율 차이분석

(단위 : 명, 만원)

	Ratio1				Ratio2				Ratio3				Ratio4				Ratio5				Ratio6				Ratio7				
	n	M	S.D.	D	n	M	S.D.	D	n	M	S.D.	D	n	M	S.D.	D	n	M	S.D.	D	n	M	S.D.	D	n	M	S.D.	D	
가구주 연령																													
30세 이하	272	0.632	0.283	a	273	0.264	0.223	d	272	4.576	5.461	a	212	0.968	0.167	c	106	1.121	3.262		86	0.158	0.202		75	.428	1.061		
31~40세	948	0.687	0.320	b	949	0.231	0.202	c	946	5.697	8.303	b	707	0.934	0.229	bc	524	1.069	3.662		415	0.173	0.334		347	.260	2.885		
41~50세	1100	0.787	0.362	c	1100	0.176	0.189	b	1098	6.111	12.988	ab	754	0.899	0.285	ab	652	1.095	6.347		517	0.481	6.036		323	.362	1.875		
51~60세	766	0.775	0.465	c	767	0.169	0.218	b	761	8.042	20.557	b	524	0.909	0.263	ab	394	1.489	10.333		279	0.169	0.160		149	.478	1.535		
61세 이상	671	0.796	0.396	c	669	0.107	0.173	a	667	11.889	27.302	c	441	0.890	0.292	a	280	1.187	4.748		173	0.217	0.311		105	.892	6.542		
F 값	19.366***				51.015***				17.777***				4.990**				.290				.600				.938				
자녀수																													
없다	773	0.747	0.371	ab	773	0.156	0.215	a	767	9.203	21.035	b	529	0.932	0.231		266	0.889	3.058		187	0.245	0.483	a	124	1.088	6.455	b	
1명	902	0.722	0.352	a	902	0.184	0.193	bc	900	8.374	23.610	b	634	0.922	0.251		453	1.541	9.885		328	0.186	0.232	a	246	.226	1.214	a	
2명	1687	0.760	0.385	ab	1687	0.197	0.207	c	1685	6.215	11.054	a	1202	0.907	0.271		999	0.984	3.302		773	0.156	0.192	a	518	.415	2.232	a	
3명 이상	395	0.773	0.435	b	396	0.168	0.185	ab	392	5.937	10.603	a	273	0.897	0.287		238	1.658	10.261		182	1.051	10.161	b	111	-.013	2.662	a	
F 값	2.499*				7.711***				7.468***				1.709				1.376				3.207*				3.198*				
가구원수																													
1명	272	0.726	0.359	ab	271	0.184	0.233	b	268	8.375	18.004	a	188	0.969	0.152	b	70	0.934	1.906		56	0.260	0.461		41	1.149	3.167	b	
2명	550	0.768	0.388	b	551	0.146	0.201	a	549	11.095	27.565	b	380	0.928	0.239	a	214	2.250	14.051		142	0.226	0.476		98	1.130	6.905	b	
3명	801	0.719	0.343	a	801	0.182	0.209	b	799	7.167	18.504	a	546	0.917	0.256	a	399	0.904	3.205		288	0.181	0.204		207	.163	1.423	a	
4명 이상	1975	0.757	0.382	ab	1976	0.194	0.199	b	1969	6.331	12.147	a	1406	0.904	0.275	a	1183	1.108	5.346		912	0.191	0.587		608	.344	2.352	ab	
F 값	2.855*				7.995***				-11.240***				3.858**				2.211				.568				3.183*				
가구주 교육수준																													
고졸이하	2721	0.768	0.373		2720	0.168	0.203		2712	6.905	16.237		1807	0.917	0.256		1391	1.123	7.266		1034	0.336	4.271		615	.408	3.251		
대졸	1036	0.702	0.395		1038	0.219	0.202		1032	8.400	9.196		831	0.909	0.271		565	1.327	4.049		436	0.163	0.330		384	.399	2.524		
t 값	-4.782***				6.774***				2.390*				-7.769				.630				-8.842				-0.043				
가구주 취업여부																													
미취업	718	.817	.417		717	.119	.208		714	12.232	31.100		418	.925	.236		324	1.768	11.621		198	.221	.413		107	.489	1.710		
취업	3039	.734	.370		3041	.197	.200		3030	6.159	11.280		2220	.912	.265		1632	1.065	4.884		1272	.295	3.853		892	.395	3.110		
t 값	-4.925***				9.095***				-5.140***				-1.011				-1.070				.267				-3.307				
가구주 직종																													
전문직	177	0.701	0.293		178	0.240	0.256		178	6.153	9.633		144	0.871	0.318		105	1.233	3.477		83	0.145	0.138		65	1.315	4.933		
비전문직	2830	0.737	0.375		2831	0.195	0.196		2820	6.163	11.296		2054	0.915	0.261		1509	1.064	4.995		1173	0.308	4.012		819	.325	2.925		
t 값	-1.262				2.308				-.012				-1.638				.340				-.368				1.596				
배우자 유무																													
부유	745	.745	.367		744	.163	.227		741	7.017	19.906		470	.957	.186		276	1.601	12.144		198	.181	.276		116	.713	2.119		
부유	3012	.751	.384		3014	.187	.197		3003	7.391	16.355		2168	.905	.273		1680	1.113	5.004		1272	.301	3.855		883	.364	3.086		
t 값	.342				2.679**				.533				-4.945***				-6.659				.437				-1.180				
배우자 취업여부																													
미취업	1566	.757	.358		1568	.180	.199		1563	9.132	20.755		1124	.911	.266		791	1.258	4.337		555	.169	.240		467	.485	3.816		
취업	1446	.744	.410		1446	.195	.195		1440	5.501	9.142		1044	.899	.281		889	.984	5.529		717	.403	5.129		416	.229	1.963		
t 값	-.902				1.992*				-6.285***				-1.054				-1.119				1.071				-1.229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896	0.752	0.390		895	0.193	0.203		893	8.066	18.121		650	0.920	0.255		486	1.236	4.238		351	0.181	0.308		261	.981	4.582		
기타	2861	0.749	0.378		2863	0.179	0.204		2851	7.082	16.783		1988	0.913	0.263		1470	1.164	7.095		1119	0.317	4.108		738	.201	2.133		
t 값	.221				1.771				1.500				.644				.212				-.619				2.651**				

* p < .05, **p < .01, ***p < .001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연령 60대 이상 가계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들은 가구주 연령대별 집단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가계의 자녀수에 따라 소득·지출비율 중에서는 Ratio1(월평균소비지출액/월평균가계소득)과 Ratio2(총저축액/총소득)가, 유동성비율에서는 Ratio3(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자산·부채비율에서는 Ratio6(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과 Ratio7(투자자산/순자산)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Ratio1은 자녀수가 가장 많은 가계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자녀수 1인가계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였다. 저축률인 Ratio2는 자녀수가 2명인 가계의 평균이 .197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가 없는 가계가 .156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즉, 자녀의 유무는 저축증가의 동기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기유동성비율 Ratio3은 자녀가 없는 가계와 자녀가 1명인 가계가 높아 예상치 못한 가계의 재무적 위험에 대처할 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Ratio6는 자녀수가 가장 많은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기타 다른 자녀수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계 투자자산비율 Ratio7은 자녀가 없는 가계와 자녀가 있는 가계의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즉, 자녀가 없는 가계의 투자자산비율은 1.088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자녀수가 3명이상인 가계는 -.013으로 음의 값을 가졌다. 즉, 자녀수의 증가는 가계의 자산축적에 큰 장애가 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가계의 자녀계획은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자녀수와 자녀출산시기를 결정해야하며, 자녀출산 이전단계의 가계는 자녀출산 이전에 투자자산축적에 가계재무구조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가구원수에 따른 가계재무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소득·지출비율 중 Ratio1(월평균소비지출액/월평균가계소득), Ratio2(총저축액/총소득)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유동성비율에서는 Ratio3(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 Ratio4(금융자산/총자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자산·부채비율에서는 Ratio7(투자자산/순자산)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Ratio1은 가구원수 2명인 가계가 가장 높았으며, 가구원수 3명인 가계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각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저축률인 Ratio2는 2인가계가 가장 낮은 .146이며, 기타 가구원수 가계는 .18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들은 사후분석결과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단기유동성을 나타내는 Ratio3은 가구원수가 2명인 가계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가구원수가 2명인 집단이 기타 다른 가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Ratio4는 1인가계가 .969로 가장 높았으며,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투자자산비율 Ratio7은 1인 가계와 2인가계가 기타 가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가구원수가 적은 가계가 투자자산비율이 건전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가구주 교육수준별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비율은 Ratio1(월평균소비지출액/월평균가계소득)과 Ratio2(총저축액/총소득) 그리고 Ratio3(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소비성향은 학력이 낮은 집단이 높았으며, 가계의 저축률은 가구주가 고졸이하 학력을 가진 가계가 .168로 가구주가 대졸이상 학력을 가진 가계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기타 가계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월평균 소득에 대한 금융자산의 비율 Ratio3은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가구주학력이 대졸이상인 가계는 금융자산으로 월평균 소득을 약 8.5개월 대체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취업여부는 Ratio1(월평균소비지출액/월평균가계소득)과 Ratio2(총저축액/총소득) 그리고 Ratio3(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가구주 취업가계가 비취업가계보다 가계소비성향을 나타내는 Ratio1에서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바람직한 소비성향비율을 보였으며, Ratio2 또한 취업가계가 비취업가계에 비해 안정적인 저축률을 나타냈다. 반면, 유동성비율인 Ratio3은 가구주가 비취업인 가계가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 가구

주 비취업가계의 금융자산보유액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배우자 유무는 가계의 저축률과 장기유동성비율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배우자가 있는 가계의 저축률은 배우자가 없는 가계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장기유동성비율은 배우자가 없는 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자산에 대한 금융자산의 비율이 높아 장기간 가계의 재무적 위험에 대처할 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배우자 취업여부는 가계의 저축률인 Ratio2(총저축액/총소득)와 단기유동성비율인 Ratio3(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배우자 취업가계의 저축률이 비취업가계보다 높았으며, 배우자 비취업 가계의 단기유동성비율은 배우자 취업가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즉, 이는 가계의 소득원 증가는 가계의 저축률 증가로 이어지며, 금융자산 보유액이 배우자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거주지역에 따른 재무비율의 차이는 Ratio7(투자자산/순자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자본축적능력을 평가하는 순자산 중 투자자산의 비율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가계가 0.981로 기타지역 0.201에 비해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2) 소득계층에 따른 가계재무비율 차이

가계의 소득계층에 따른 재무비율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수행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사후검정으로 Duncan의 다중범위 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 소득계층에 따른 재무비율 차이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소득계층에 따른 가계재무비율 차이분석

(단위 : 명, 만원)

		전체	소득1분위	소득2분위	소득3분위	소득4분위	F값
Ratio 1 (월평균소비지출액/월평균가계소득)	n	3757	939	950	965	903	353.265***
	M	.750	1.028	.759	.668	.534	
	S.D.	.381	.521	.251	.217	.267	
	D		d	c	b	a	
Ratio 2 (총저축액/총소득)	n	3758	939	949	966	904	45.374***
	M	.182	.121	.182	.208	.220	
	S.D.	.204	.230	.183	.199	.185	
	D		a	b	c	c	
Ratio 3 (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	n	3744	930	949	964	901	2.519
	M	7.317	8.284	6.590	6.565	7.889	
	S.D.	17.114	24.970	14.526	11.060	14.796	
	D		b	a	a	ab	
Ratio 4 (금융자산/총자산)	n	2638	474	642	742	780	12.263***
	M	.914	.925	.944	.930	.868	
	S.D.	.26	.248	.213	.239	.312	
	D		b	b	b	a	
Ratio 5 (금융자산/총부채)	n	1956	427	470	515	544	4.678**
	M	1.182	.481	1.411	.797	1.898	
	S.D.	6.502	2.617	10.122	1.964	7.322	
	D		a	bc	ab	c	
Ratio 6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	n	1470	287	354	406	423	1.426
	M	.285	.294	.612	.160	.125	
	S.D.	3.587	.357	7.287	.373	.147	
	D						
Ratio 7 (투자자산/순자산)	n	999	92	217	310	380	1.519
	M	.405	1.022	.390	.377	.286	
	S.D.	2.991	6.971	1.285	2.551	2.353	
	D		b	a	a	a	

* p < .05, **p < .01, ***p < .001

연구결과 Ratio1(월평균소비지출액/월평균가계소득)과 Ratio2(총저축액/총소득), Ratio4(금융자산/총자산)과 Ratio5(금융자산/총부채)가 소득계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소비성향을 나타내는 Ratio1은 전체 가계의 평균이 .75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총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인 소득4분위집단이 .534로 가장 낮으며,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1분위집단이 가장 높은 1.028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각 소득계층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소득수준에 따른 소비성향의 차이는 소비지출액의 증가보다 소득의 증가가 더 크기 때문에 고소득계층의 소비성향이 낮게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저축률 Ratio2는 조사대상가계 전체 평균은 .182이며, 소득계층별로 총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낮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이들은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소득4분위집단 .22, 소득3분위집단 .208로 평균 저축률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소득1분위집단의 저축률은 .121로 기타 다른 집단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집단은 소득 중 저축의 비중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장기 유동성비율 Ratio4는 소득4분위집단이 0.868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소득1분위, 소득2분위, 소득3분위집단 가계는 전체 조사대상가계의 평균인 0.914를 모두 넘어 소득4분위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비율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보유자산의 형태가 실물자산인지, 금융자산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며, 자산 규모에 따라 유동성비율의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된다. 따라서 소득4분위집단의 보유자산의 형태는 금융자산보다 실물자산의 비중이 더 큼을 알 수 있었다.

금융자산을 이용하여 총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Ratio5는 전체 평균은 1.182이며, 소득1분위집단이 .481로 가장 낮으며, 소득4분위집단이 1.8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4. 가계채무비율 영향요인

1) 가계채무비율 준거기준 만족여부

가계의 재무구조분석을 위해 각 재무비율의 준거기준을 중심으로 준거기준을 충족시킨 가계와 준거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가계를 구분하였다. 즉, 준거기준을 만족시켜주는 집단에 속할 확률을 1로 구분하여 이 집단을 가계채무구조가 안정적이라 정의하였다. 준거기준을 만족시켜주지 못한 집단에 속할 확률이 0이면 재무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한 가계로 판단하였다. 재무비율별로 각 준거기준에 만족한 가계의 비율은 다음의 <표 7>와 같다.

<표 7> 가계채무비율 준거기준 만족여부

	전체		소득1분위		소득2분위		소득3분위		소득4분위	
	n	만족비율(%)	n	만족비율(%)	n	만족비율(%)	n	만족비율(%)	n	만족비율(%)
Ratio 1	3757	74	939	41	950	73	965	86	903	96
Ratio 2	3758	57	939	36	949	57	966	66	904	68
Ratio 3	3744	61	930	43	949	59	964	68	901	75
Ratio 4	2638	95	474	95	642	97	742	95	780	92
Ratio 5	1956	49	427	26	470	43	515	57	544	66
Ratio 6	1470	81	287	61	354	80	406	89	423	87
Ratio 7	999	52	92	54	217	55	310	51	380	52

가계채무비율 준거기준을 만족시키는 전체 조사대상가계의 비율은 대부분의 비율에서 50%이상으로 나타났다. 장기유동성비율을 나타내는 Ratio4(금융자산/총자산)의 준거기준을 만족시킨 가계는 95%로 가장 높았으며, Ratio5(금융자산/총부채)와 Ratio7(투자자산/순자산)은 각각 49%, 52%로 낮은 비율로 준거기준을 만족시켰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소득4분위집단은 Ratio1(월평균소비지출액/월평균가계소득)의 준거기준만족비율이 가장 높았으

며, Ratio7(투자자산/순자산)이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소득1분위집단은 Ratio4(금융자산/총자산)에서 가장 만족하는 가계가 많았으며, Ratio5(금융자산/총부채)의 준거기준을 만족시키는 가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가계재무비율 준거기준 만족 영향요인

안정적인 재무구조집단에 속하기 위한 영향요인 알아보기 위해 Logit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인구학적변수와 재무관련변수 그리고 기타변수로 독립변수를 구성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가구주의 연령, 자녀수 그리고 가구주교육수준과 가구주 직업, 거주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무관련 변수에는 소득계층, 순자산보유여부와 흑자가계여부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타변수에는 가계경제여건평가와 우리나라 경제여건평가점수가 포함되어 있다. 가구주 교육수준과 가구주 직업, 거주지역, 소득계층과 순자산보유 여부 및 흑자가계여부는 가변수처리 하였다. 즉, 가구주가 대졸이상의 학력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구분하였고, 가구주의 직업 또한 전문직인 경우 1, 비전문직인 경우 0으로 구분하였다. 거주지역은 서울특별시와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순자산 보유여부와 흑자가계여부 및 소득계층 구분 또한 이와같은 방법으로 구분하였다. 가계경제여건평가문항은 현재가계경제여건평가와 1~2년 후 가계경제여건평가 점수를 합하였으며, 우리나라 경제여건평가도 이와 같이 하였다. 재무비율 준거기준 만족 영향요인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우선, **Ratio1(월평균소비지출액/월평균가계소득)**의 결과를 보면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Model Chi-Square = 1869.568, $p < .001$)하며 총 사례의 92.3%를 정확하게 분류하였다. -2LL의 유의도를 통해 Logit 분석 모델의 적합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2Log Likelihood = 1362.136). Ratio1의 준거기준 만족에 유의

<표 9> 가계재무비율 준거기준 만족 영향요인분석

	Ratio 1			Ratio 2			Ratio3			Ratio4			Ratio5			Ratio6			Ratio7		
	B	Exp(B)	#	B	Exp(B)	#	B	Exp(B)	#	B	Exp(B)	#	B	Exp(B)	#	B	Exp(B)	#	B	Exp(B)	#
사회인구학적 변수																					
가구주 연령	-.019**	.981	-0.005	-.032***	.969	-0.008	.003	1.003	0.001	-.021*	.980	-0.001	-.008	.992	0.002	-.001	.999	-0.0001	-.013	.987	-0.0001
자녀수	-.429***	.651	-0.106	.055	1.056	0.013	-.046	.955	-0.114	-.197	.821	-0.008	-.116	.890	-0.027	-.082	.922	-0.011	.339**	1.404	0.004
가구주교육수준(대졸=1)	-.128	.880	-0.032	.190	1.209	0.046	.272*	1.313	0.067	.014	1.014	0.001	.385**	1.469	0.089	.164	1.179	0.021	.074	1.077	0.001
가구주 직업(전문직=1)	-.075	.927	-0.019	-.073	.930	-0.018	-.457*	.633	-0.113	-.555	.574	-0.022	-.604*	.547	-0.139	.374	1.453	0.049	-.289	.749	-0.003
거주지(서울=1)	-.330*	.719	-0.082	-.013	.987	-0.003	.156	1.168	0.039	.242	1.273	0.009	.252	1.286	0.058	-.003	.997	-0.0004	.328	1.388	0.004
재무관련 변수																					
소득계층																					
소득2분위	.882***	2.417	0.219	.242*	1.273	0.058	.292*	1.339	0.072	.811*	2.251	0.032	.294	1.342	0.068	.645**	1.906	0.084	-.874	.417	-0.010
소득3분위	1.793***	6.008	0.445	.520***	1.681	0.126	.759***	2.136	0.188	.036	1.036	0.001	.908***	2.480	0.209	1.409***	4.091	0.184	-1.150**	.317	-0.013
소득4분위	2.889***	17.977	0.717	.536***	1.709	0.129	.855***	2.352	0.212	-.408	.665	-0.016	.890***	2.435	0.205	1.027***	2.794	0.134	-1.354*	.258	-0.015
순자산보유여부 (순자산>0=1)	.029	1.030	0.007	1.067***	2.906	0.258	2.850***	17.283	0.707	-.960***	.383	-0.038	2.142***	8.514	0.494	.577**	1.780	0.075	11.557	104553.1	0.127
흑자가계여부 (유=1)	11.998	162426.9	2.978	.233*	1.262	0.056	.142	1.152	0.035	.471	1.602	0.018	.434*	1.544	0.100	.547**	1.728	0.071	-.080	.923	-0.001
기타변수																					
가계경제여건 평가	-.016	.984	-0.004	-.108**	.898	-0.026	-.106*	.900	-0.026	-.083	.921	-0.003	-.086	.917	-0.020	.152*	1.165	0.020	.044	1.045	0.0005
우리나라 경제여건평가	.023	1.023	0.006	-.031	.970	-0.007	.003	1.003	0.001	.013	1.013	0.001	.010	1.010	0.002	-.040	.961	-0.005	-.112	.894	-0.001
상수	-9.426	.000		1.256***	3.510		-.983**	.374		4.672***	106.952		-.655	.519		-.162	.851		-9.100	.000	
-2 Log Likelihood	1362.136			3546.314			2724.198			899.048			1804.513			1090.158			672.020		
Model Chi-Square	1869.568***			393.763***			1171.082***			51.906***			404.133***			86.944***			545.077***		
Concordant rate	92.3%			67.5%			78.8%			94.3%			70.5%			81.9%			82.7%		
N	1961			2959			2961			2173			1594			1239			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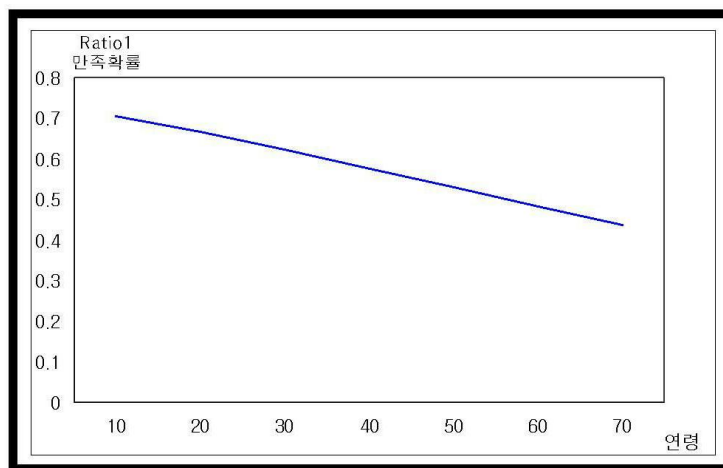
*p < .05, **p < .01, ***p < .001

주) 각 독립변수들의 평균은 <부록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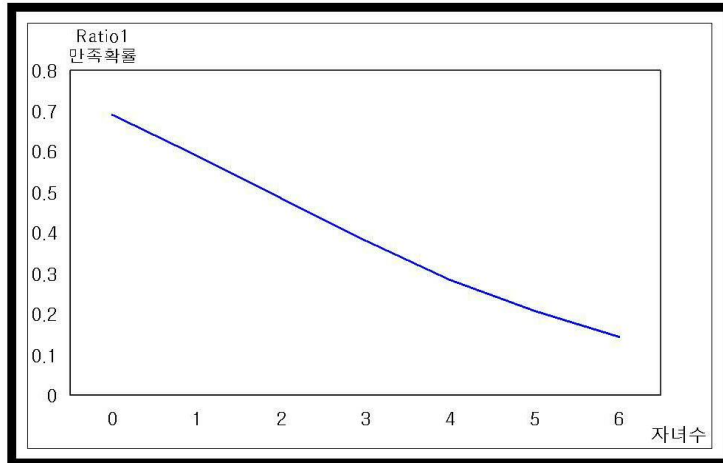
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주연령과 자녀수, 거주지 그리고 소득계층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이 1살 많을수록 Ratio1 준거기준을 만족할 확률이 0.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주 연령이 높은 가계는 가계의 소비성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수가 한명 많을수록 Ratio1의 준거기준을 만족시킬 확률이 10.6%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녀수의 증가가 소비성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거주지가 서울특별시인 가계는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가계에 비해 Ratio1 준거기준 만족확률이 8.2%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 거주가계의 소비성향이 높아 기타 다른 지역에 비해 소득·지출비율측면에서는 재무구조가 건전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총소득으로 구분한 소득계층에 따라 Ratio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소득4분위집단은 소득1분위집단에 비해 72% Ratio1 준거기준 만족확률이 높았으며, 소득2분위집단은 22%, 소득3분위집단은 45%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가구주연령 및 자녀수변화에 따른 Ratio1 만족 확률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1>, <그림 2>과 같다.



<그림 1> 가구주연령에 따른 Ratio1(월평균소비지출액/월평균가계소득)의 준거기준만족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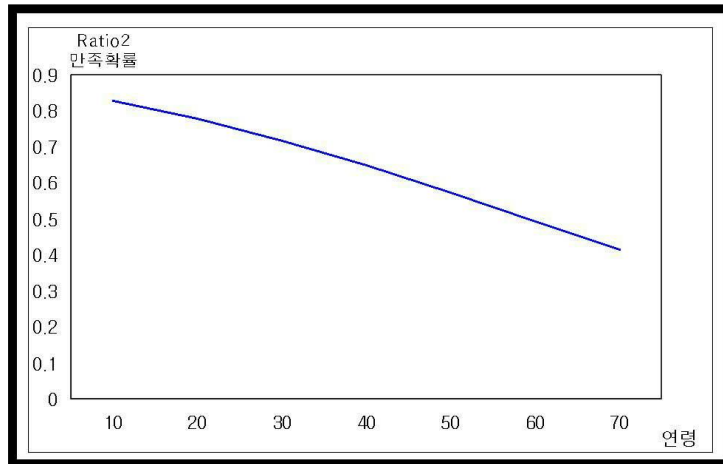


<그림 2> 자녀수에 따른 Ratio1(월평균소비지출액/월평균가계소득)의 준거기준 만족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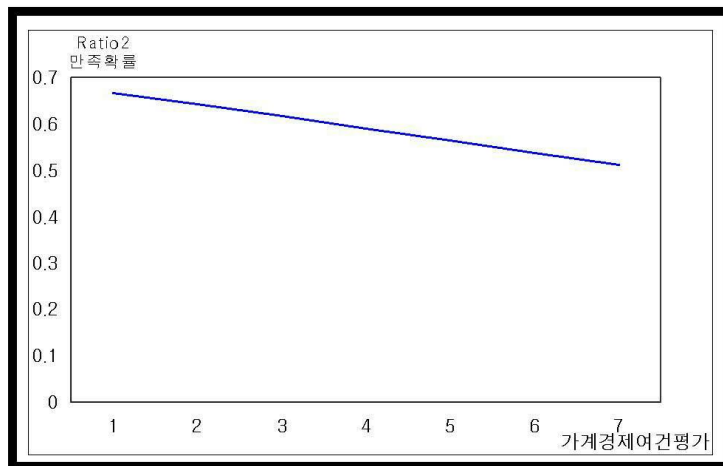
Ratio2(총저축액/총소득)의 준거기준 만족 영향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Model Chi-Square = 393.763, $p < .001$)하며 총 사례의 67.5%를 정확하게 분류하였다. -2LL의 유의도를 통해 Logit분석 모델의 적합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2Log Likelihood = 3546.314). Ratio2의 준거기준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주연령, 소득계층, 순자산 보유여부, 흑자가계여부 그리고 가계경제여건 평가로 나타났다.

가구주연령이 높을수록 저축률인 Ratio2의 준거기준에 만족할 확률이 0.8%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구주 연령 증가는 일반적으로 가계의 소득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저축액의 비율은 가구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낮아진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또한, 준거기준인 소득1분위집단에 비해 소득2분위집단은 5.8%, 소득3분위집단은 12.6% 그리고 소득4분위집단은 12.9% 저축률 준거기준만족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소득은 높으나 저축액 증가가 이를 상쇄하여 건전한 가계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계가 순자산을 보유하거나 흑자가계일 경우 저축률 준거기준을 만족시킬 확률이 25.8%, 5.6%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가계의 경제여건 평가점수가 1단위 낮을수록 저축률 준거기준 만족확률이 2.6% 더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가계경제여건 평가에서의 부정적인 측면이 이를 극복하

려는 재무적 행동으로 가계저축률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가구주 연령과 가계경제여건 평가의 변화에 따른 Ratio2 만족 확률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3>, <그림 4>과 같다.



<그림 3> 가구주연령에 따른 Ratio2(총저축액/총소득)의 준거기준 만족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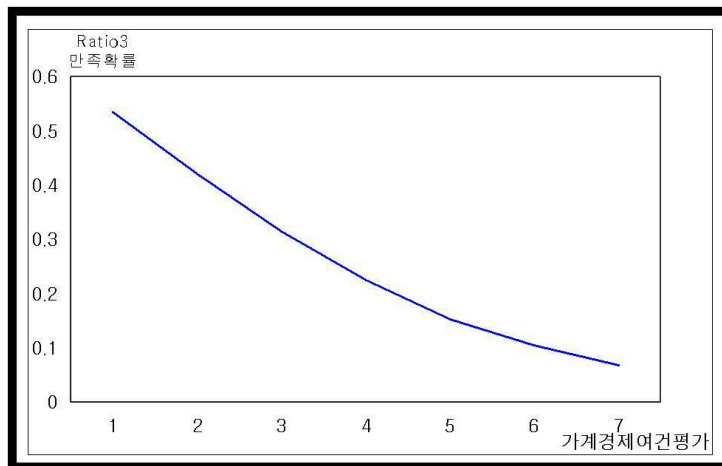


<그림 4> 가계경제여건평가에 따른 Ratio2(총저축액/총소득)의 준거기준 만족확률

Ratio3(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의 준거기준 만족 영향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Model Chi-Square = 1171.082, $p < .001$)하며 총 사례의 78.8%를 정확하게 분류하였다. -2LL의 유의도를 통해 Logit 분석 모델의 적합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2Log Likelihood = 2724.198). Ratio3의 준거

기준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주 교육수준과 가구주 직업, 소득계층, 순자산 보유여부 그리고 가계경제여건 평가로 나타났다.

가구주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가계가 Ratio3의 준거기준을 만족시킬 확률이 6.7% 높으며, 가구주 직업이 전문직인 가계는 Ratio3 준거기준 만족확률이 비 전문직보다 11.3%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소득2분위집단은 준거집단인 소득1분위집단에 비해 7.2%, 소득3분위집단은 18.8%, 소득4분위집단은 21.2%, 준거기준 만족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순자산을 보유한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Ratio5 준거기준만족 확률이 70.7%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순자산보유여부는 가계유동성 확보의 큰 영향력 있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계경제여건 평가점수가 1단위 낮을수록 Ratio3 준거기준 만족확률이 2.6%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가계의 단기 재무적위험에 대처 능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가계경제여건평가 점수의 변화에 따른 월평균 소득에 대한 금융자산의 비율인 Ratio3 준거기준 만족 확률을 살펴보면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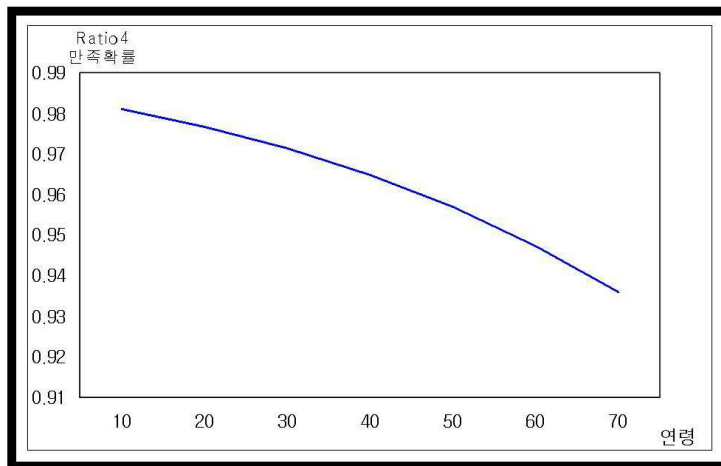


<그림 5> 가계경제여건평가에 따른 Ratio3(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의 준거기준 만족확률

Ratio4(금융자산/총자산)의 준거기준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Model Chi-Square = 51.906, $p < .001$)하

며 총 사례의 94.3%를 정확하게 분류하였다. -2LL의 유의도를 통해 Logit 분석 모델의 적합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2Log Likelihood = 899.048). Ratio4의 준거기준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주 연령, 소득2분위집단 그리고 순자산보유여부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 1살 증가는 장기유동성비율 Ratio4의 걱정 준거기준 만족확률을 0.1% 낮추며, 소득2분위집단은 소득1분위집단에 비해 장기유동성비율 준거기준 만족확률이 3.2%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순자산 보유여부는 3.8%감소시킴을 알 수 있었다. 가구주연령 증가에 따른 Ratio4 준거기준 만족 확률을 살펴보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 가구주연령에 따른 Ratio4(금융자산/총자산)의 준거기준 만족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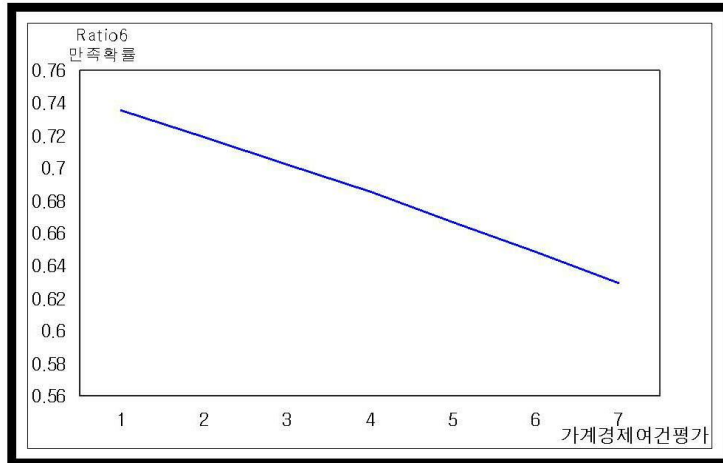
유동성비율 Ratio3과 ratio4는 실직이나 사업실패, 새로운 일의 시작이라든가 이직과 같은 사건과 관련되어 갑작스러운 소득감소에 대처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가게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소득감소는 가게에 대해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기유동성비율의 걱정 준거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재무적 변수들의 관리뿐만 아니라 가게 내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모색하고 가게간의 갈등을 줄이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전략 또한 모색을 해야 하겠다(Danes & Stumme, 1995).

Ratio5(금융자산/총부채)의 준거기준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Model Chi-Square = 404.133, $p < .001$)하며 총 사례의 70.5%를 정확하게 분류하였다. -2LL의 유의도를 통해 Logit 분석 모델의 적합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2Log Likelihood = 1804.513). Ratio5의 준거기준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직업, 소득계층, 순자산보유여부와 흑자가계여부로 나타났다.

가구주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자인 경우 부채상환능력 Ratio5의 적정기준 만족확률이 8.9% 증가하며, 가구주 직업유형이 전문직일 경우 13.9%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득4분위집단과 2집단은 각각 소득1분위집단에 비해 적정기준 만족확률이 20.5%, 20.9%더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순자산 보유와 가계의 흑자여부는 각각 Ratio5의 준거기준 만족확률이 49.4%, 10.0%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순자산보유여부와 가계수지의 안정화는 부채상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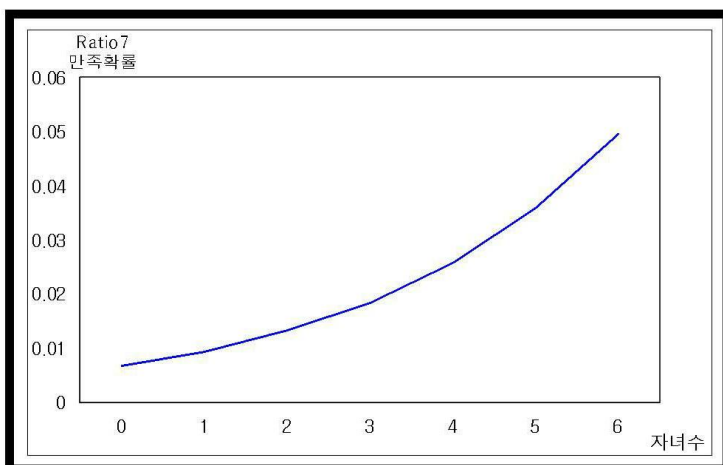
Ratio6(월 평균부채상환액/월 평균가계소득)의 준거기준 만족 영향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Model Chi-Square = 86.944, $p < .001$)하며 총 사례의 81.9%를 정확하게 분류하였다. -2LL의 유의도를 통해 Logit 분석 모델의 적합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2Log Likelihood = 1090.158). Ratio6의 준거기준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소득계층, 순자산보유여부와 흑자가계 여부 그리고 가계경제여건평가로 나타났다.

소득1분위집단에 비해, 소득2분위집단은 8.4%, 소득3분위집단은 18.4%, 소득4분위집단은 13.4%, Ratio6 준거기준 만족 확률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계의 순자산 보유여부와 가계의 흑자여부는 Ratio6의 준거기준 만족확률을 각각 7.5%, 7.1% 높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계경제여건 평가 변화에 따른 Ratio12의 준거기준 만족 확률을 살펴보면 <그림 7>와 같다.



<그림 7> 가계경제여건평가에 따른 Ratio6(월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의 준거기준 만족확률

Ratio7(투자자산/순자산)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Model Chi-Square = 545.077, $p < .001$)하며 총 사례의 82.7%를 정확하게 분류하였다. -2LL의 유의도를 통해 Logit 분석 모델의 적합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2Log Likelihood = 672.020). Ratio7의 준거기준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계의 자녀수와 소득계층으로 나타났다. 자녀수 증가는 순자산에 대한 투자자산의 비율의 준거기준을 만족시킬 확률을 0.4%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소득3분위집단은 1.3%, 소득4분위집단은 1.5% Ratio7의 준거기준 만족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 증가에 따른 Ratio7 준거기준 만족확률을 살펴보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자녀수에 따른 Ratio7(투자자산/순자산)의 준거기준 만족확률

자녀수가 많은 가계가 순자산에 대한 투자자산 비율의 준거기준 만족 확률이 높은 것을 볼 때, 이는 가계가 자녀를 통해 미래의 예상되는 지출을 인지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많은 가계 혹은 아직 자녀가 없는 가계 일지라도 미래 자녀계획을 위해서는 투자자산 적정 비율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산배분을 해야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가계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상황은 각종 수급요인의 불균형, 인플레이션, 원가변동 및 시장의 경쟁요인 등으로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가계의 외적 환경변화는 가계의 내적 요구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재정문제에 대한 가계의 적응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가계는 내적, 외적 변화에 잘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재정적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재정적 위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가계는 현재의 소비수요를 충족하려는 욕구와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요구간에 평형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며, 또한 미래의 재정적 위기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인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조직하게 된다. 이러한 가계재무관리는 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체안의 구성을 뜻하며, 재무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계의 공동요구를 찾아내어 예측할 수 있는 변화를 계획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인 및 가계의 재무설계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가계 재무구조분석, 즉 지금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현재 소득은 얼마이며 지출은 그에 맞게 하고 있는지, 가계의 자산은 어느 정도 인지, 가족원의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의 돈이 더 필요한지, 나의 재무상태 또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건전한지 등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분석이 바로 가계 재무구조분석이다.

본 연구는 가계소득계층 및 가계특성에 따른 가계재무구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소득계층별 재무구조는 소득수준이 높은 소득4분위집단이 소득·

지출 그리고 자산·부채변수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소득4분위집단 즉, 고소득집단의 가계재무구조와 상태는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집단의 가계부채가 기타 다른 소득계층 집단과 비교해 볼 때, 소득수준에 비해 부채부담이 높은 수준이나 순자산보유액의 정도가 기타 다른 집단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가계의 안정적인 자산구조형태를 볼 수 있었다.

한편, 저소득 가계인 소득1분위집단의 가계재무구조는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부족하고 순자산보유액 정도가 낮아 가계의 안정적인 재무관리가 어려우며 미래 예기치 못하는 위험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순자산 보유뿐 만 아니라, 가계수지측면 즉, 가계 흑자율에서도 매우 큰 불안정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소득과 지출간의 차이뿐 만 아니라 만성적인 부채부담이 가계수지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때, 저소득층 가계는 부채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재무구조의 대대적인 개편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소득계층별 상이한 재무구조와 상태는 가계의 재무관리 및 미래의 자산관리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둘째, 가계의 특성 중 우선, 가구주 연령에 따른 재무비율을 살펴보면, 소득·소비지출관련 비율은 가구주 연령이 낮은 가계가, 자산과 관련한 비율은 연령이 높은 가계가 안정적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유자산이 증가함을 볼 때, 우리나라 가계는 자산축적에 민감한 반응을 하고, 부동산 소유욕구가 강함을 알 수 있었다. 가계의 유동성은 금융자산의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단기유동성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지출 및 소득을 상쇄하는 높은 금융자산으로 인해 가계가 소득원의 부재 및 재정적 위기에서도 일정기간 가계를 이전 생활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장기유동성비율은 가구주 연령이 높은 가계에서 더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증가가 가계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20, 30대 가계는 금융자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한다.

일반적으로 가계는 일생을 통해 가족원의 효용극대화하기위해 재무계획을 하고, 현재 뿐만 아니라 은퇴이후의 생활유지를 위한 목적이나 예비적인 저축 또는 자손들에게 상속자산을 남겨주고자 하는 욕구까지도 고려하여 미래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한다(김연정, 1998). 이와 같이 연령의 변화와 소득수준의 변화는 가계에게 적절한 노후 준비위한 안정적 재무구조의 필요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노년기이후 가계의 재무관리를 위해서는 소득이 높은 시기에 자산축적을 늘리고, 은퇴 후 가계를 위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한편, 가구주 연령 50대 가계의 부채 보유액 증가는 일반적으로 이시기에 자녀의 교육비 및 자녀 결혼 등을 위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계는 금융자산축적과 소득증진을 위해 노력을 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이러한 예상되는 가계지출을 위한 금융상품 프로그램을 각 가계가 원하는 수준으로 맞추어 개발하도록 노력해야하겠다.

또한, 자녀가 없는 가계와 1인가계의 재무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가구원수 특히, 자녀의 유무 및 자녀수의 증가가 가계의 재무적 구조를 불안정하게 하는 핵심요소임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들이 최근 우리사회의 무자녀 가계, 독인가계의 증가현상을 일정부분 설명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제는 많은 가계들이 무자녀, 독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녀수가 많아 가족계획은 정부차원에서 권장하던 60~70년대와는 달리 이제는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평균 자녀수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 경제활동의 기본 자산이 되는 인적자원의 부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현재 자녀수에 따른 공교육비 면제 등 정부는 가계에 소폭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인적자원 양성 및 가계로의 경제적 지원을 국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더욱더 활성화해야 하겠다.

한편, 가구주 비취업가계와 배우자 비취업가계의 단기유동성비율이 취업자 가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 취업가계의 월소득은 배우자 비취업가계보다 높았으나, 배우자 비취업가계의 금융자산이 배우자 취업가계보다 월등히 높아, 가계의 충분한 자산보유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진입하지 않게 하는 동기가 되리라 사료된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가계재무상태에 따라 여전히 선택사항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혼여성의 취업은 여러 측면에서 가계경제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단순히 기혼여성의 취업에 의해 주어지는 가계소득의 양적인 측면에서의 추가 외에, 임시 소득적 역할에서 점차 가계소득의 일부를 담당하는 고정소득의 의미가 커짐에 따라 가계재무구조에의 영향력 형태도 변화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가계 유동성 확보율은 단시간 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 부족하고 소득원 증가로 인해 소득과 지출이 전업주부가계보다 크다면 가계가 재무적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가계유동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세정(1997)의 연구에서는 기혼여성 취업가계는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자산축적의 원천이 되는 흑자액의 규모가 거의 배에 이르며, 총 소비지출액이 두 집단간에 적은 차이를 보임에 따라 평균 소비성향은 총 가계소득이 많은 취업주부 가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가계 특성 중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에서는 서울특별시 거주가계가 기타 다른 지역 거주가계보다 투자자산비율인 Ratio7(투자자산/순자산)이 높았는데, 이는 자산증식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은퇴 후 혹은 소득중단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은퇴전과 비슷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자산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가계소득계층별 가계재무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Ratio1(월평균소비지출액/월평균가계소득)과 Ratio2(총저축액/총소득), Ratio4(금융자산/총자산)과

Ratio5(금융자산/총부채)가 소득계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소비성향 총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인 소득4분위집단이 가장 낮으며,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1분위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른 소비성향의 차이는 소비지출액의 증가보다 소득의 증가가 더 크기 때문에 고소득계층의 소비성향이 낮게 나온 것이다.

가계의 저축률은 총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낮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특히,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집단은 소득 중 저축의 비중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가계의 저축은 가계소득 중 일부를 미래소득 혹은 자산축적의 목적으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 화폐이며, 현재의 소득보다 적게 소비하며 이로써 나중에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나중에 고소비를 하고자 하면 현재에는 낮은 수준의 소비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저소득층 가계는 소득수준이 현저히 낮아 현재에 낮은 수준의 소비를 하고 있지만, 미래에도 고소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가계는 우선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유동성비율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보유자산의 형태가 실물자산인지, 금융자산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며, 자산규모에 따라 유동성비율의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된다. 따라서 소득4분위집단의 보유자산의 형태는 금융자산보다 실물자산의 비중이 더 큼을 알 수 있었다.

금융자산을 이용하여 총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부채상환능력은 소득1분위집단이 가장 낮으며, 소득4분위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은 가계가 자산과 부채액 모두 높으나,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자산의 비율이 높다면 가계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소득계층은 모든 가계재무비율 준거기준 만족 여부에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가계의 재무구조 및 가계재무구조의 안정화에 가계의 총소득이 좌우를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가계는 현재가계가 속해있는

소득계층을 파악하고 상위소득계층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하겠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가계의 재무구조는 가계구성원들의 사회인구학적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가계재무구조 분석에 앞서 계획성 있는 가계구성원의 구조 및 배우자취업여부, 거주지 등의 재분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가계의 자원으로 경제적 열망을 충족시켜야하는 가족원들의 계획적인 조직운영 또한 요구되며, 특히 저소득계층의 경제활동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요인과 적극적인 참여 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요인과 정책적인 함의를 찾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소득계층별로 가계수지균형을 유지해야하겠다. 특히, 가계소비지출은 그 지출 자체의 증가와 감소에 따른 단순한 파악보다는 소비지출 항목들 간의 상충관계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 가계복지측면에서 소득계층별 가계수지균형을 파악함으로써 소득계층에 따른 재무관리교육에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각 소득계층별로 현재 및 미래의 예상소득을 산정하여 실질적인 재무관리교육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이나 사회의 계층과 같은 집단별 차이의 분석과 같은 후속연구로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각 소득계층별로 가계의 재무적 안전감과 미래지향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절한 수준의 자산보유형태가 중요한 변수가 됨을 알 수 있었다. 고소득계층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적정비율을 확보하고, 부채를 감소시키며, 순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즉, 가계특성 및 소득수준에 맞는 자산보유액을 인지하고, 가족구성원의 효용극대화를 위한 실천에 노력해야 하겠다. 또한,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압박을 덜어주고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지 않도록 주어진 자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자산증진을 할 수

있는 국가정책적인 프로그램 구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넷째, 가계의 가장 기본적인 자산축적방법은 저축이다. 이러한 저축은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진다. 가계가 안정적인 소득이 생기기 이전에는 전혀 저축을 하지 못하고 소득이 늘어나 저축이 많아지게 되며, 노년기에는 그동안 저축한 것을 소비하며 산다는 것이다. 이처럼 가계가 저축을 하고 자산을 늘리는 이유는 전생애에 걸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효용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가계는 각기 그 구성원들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때때로 부채를 사용한다. 저축이 현재의 소득보다 적게 소비하며 이로써 나중에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하는 반면, 부채는 현재의 소득보다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으나 미래의 소비는 미래의 소득보다 더 적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현재의 고소비는 미래의 제한된 소비를 의미하며, 나중에 고소비를 하고자 하면 현재에는 낮은 수준의 소비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가계는 적정수준의 저축과 부채가지고 가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고자한다. 따라서 가계는 소득수준별로 적정수준의 저축과 부채범위를 제시하고 이와 함께 가계특성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제언

모든 가계는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충족시키며,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기 위해 노력을 한다. 또한 각 가계의 총 효용은 가계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그 가계가 일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할 때 극대화된다. 그러나 현재 자신이 속해있는 가계의 재무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어느 정도 재무구조를 파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미래단계까지 안정적인 유지, 혹은 향상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에 따른 가계재무구조 및 가계재무비율은 비교·분석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선행되어온 재무 분석과는 가계의 특성뿐 만 아니라, 가계소득계층별로 구분하고, 여러 재무비율을 조합하여 종합적인 재무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노동패널자료를 통해 일부 지역에 한정되지 않은 객관성있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계는 각자 자신이 속한 가계의 재무상태를 비교·검증하여 재정적 안전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다음단계의 안정적인 재무관리를 위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녀 계획 및 기혼여성의 취업시기, 은퇴시 안정적인 가계재무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부채 및 자산 수준 및 유형설정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즉, 가계 내 재정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가계소득계층 구분에 있어, 자녀수와 가구원수를 고려하지 않은 가계전체 총소득으로 소득계층을 구분하여 자녀수 및 가구원수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녀수 및 가구원수를 반영한 복합적인 가계의 계층구분을 상세히 하고 정확한 계층구분을 통한 재무구조 분석을 한다면 더욱더 의미있는 재무관련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는 횡단자료를 이용한 소득계층별 가계재무구조 분석이므로, 소득수준에 따른 재정적 자원과 욕구의 변화를 반영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계열 분석을 통해, 가계의 변화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는 가계 내 재무구조파악에 중점을 두었으며, 금융시장환경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경제 혹은 금융시장의 동향에 따라 여러 변수가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자료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가계는 미래의 위험 혹은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해야하며, 본 연구에서도 금융자산 축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통해 가계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미래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 및 금융기관에서도 생애주기에 맞는 효율적인 자산축적방법 및 상품개발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하겠다. 또한 저소득층과 빈곤층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재정관리 프로그램을 기획 및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비율분석에만 그치지 않고, 여러 재무비율을 소득·지출비율, 유동성비율, 자산·부채비율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재무구조를 파악하고 이들의 준거기준을 만족시키는 가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동산소유욕구 및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가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구에 이용된 재무비율은 이러한 특성을 살리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수준, 자녀교육을 위한 자산축적 정도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각 가계의 특성에 맞는 준거기준을 세부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재무지수를 산정하는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효율적인 가계재무구조를 갖추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순미(1987), 도시가계의 금융자산선택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박사학위논문.
- 김연정(1998), 재무비율분석을 통한 가계의 재정상태분석 -노후준비를 중심으로 한국소비자학회, '98학술발표회 자료집, p.37-63.
- 김진욱·박창원(2001), 소득계층의 실태와 특성에 관한 분석, 공공경제, 제6권 2호, p.1-15.
- 김철중(2000), 「재무분석」, 한국금융연수원.
- 김철희(2003), 저소득층의 특성 및 경제활동상태 변화에 관한 연구, 제5회 한국노동패널.
- 김혜련·최현자(1999), 유형별 가계소득과 자산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 10호, p.91-106.
- 노윤주(1996), 도시 근로자가계의 가족생활주기별 소비지출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류상영·강석훈(1999), 중산층의 변화시대와 정책방향, 삼성경제연구소.
- 문숙재·정순희·여윤경(2002), 가계 순자산 규모의 결정요인. 소비자학연구, 제 13권 3호, p.169-188.
- 박연수(1997), 「짚지돈 굴리는데는 금융상품이 최고다」, 현대미디어.
- 배미경(1998),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비결정함수 분석, 소비자학연구, 제9권 14호, p. 83-101.
- _____ (2001), 재무비율분석을 이용한 가계재정상태 비교분석 : 근로소득자 vs 자영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9권 9호, p.49-61.
- 배희선·최현자(1996),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농가주부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 화폐관리행동, 자녀교육비 대비행동 및 노후준비행동을 중심으로.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3호, p.167-179.
- 보건복지부(2001), 「2002년도 최저생계비」
- 성영애(1996), 도시근로자가계의 부채부담추이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6호, p.183-194.
- _____ (2003), 가구주 직업에 따른 연령별 가계재무구조의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1호 p.39-58.
- 성영애 · 양세정 · 이희숙 · 최현자(2004),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를 이용한 가계 유형의 분석. 소비자학연구, 제15권 3호, p.155-171.
- 소연경(2000), 도시가계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구조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12호, p.1-14.
- 손주영(1998), 도시가계의 가계자산 투자행태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심영(1993), 가계부채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제4권 2호 p.29-50.
- 안승철 · 김년희(2001),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의 재정상태분석. 영남대학교 지역발전 연구, p.73-97.
- 양세정(1997), 주부취업과 가계경제구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5권 4호.
- 양정선(1992), 체계론에 기초한 도시가계의 저축 및 투자생동분석,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_____ (1997), 산술적 저량과 재무비율 측정을 중심으로 한 가계의 재정상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여윤경(2003), 가계투자자산 규모의 결정요인. 소비문화연구, 제6권 1호, p.1-16.
- 윤정혜 · 김경자 · 성영애 · 손상희 · 양세정 · 이희숙 · 최현자(2001), 소비자재무 설계 · 상담 ·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방향. 소비자학연구, 제12권 3호, p.89-108.

- 이은실·최현자(1998),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소비자 포트폴리오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6권 3호, p.111-112.
- 이은정·이은영(1999), 고소득층 소비자의 쇼핑성향과 의류상품구매행동 특성 - 서울강남지역 여성들을 중심으로 -, 한국복식학회지, 제52권 7호, p.57-69.
- 이기춘·박명희·윤정혜·손상희·김경자·성영애(1998), 소비자 재무설계론, 학현사.
- 이성림(2002), 가계의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9호, p.143-160.
- 이승신·김기욱·김경자·심영·정순희(1996), 「가계경제학」, 학지사.
- 이승신(2003), 가계의 재무구조가 사교육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소득계층별 접근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11호, p.151-169.
- 임정빈(1986), 가정의 금전관리에 관한 실증적 조사연구. 박금순 편저, 가정의 금전관리, p.9-78.
- 임정빈·김윤희(2000),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득·소비지출비교 : 1982 - 1998 도시근로자가계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6권 2호, p.83-96.
- 정순희·김현정(2002), 소득, 지출 및 자산 충분성 분석을 통한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재정상태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0권 2호, p.113-122.
- 정운영·한경미(2004), 가족생활주기와 가계의 비상자금 적정도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제15권 1호, p.23-37.
- 조순·정운찬(1993), 「경제학원론」, 법문사.
- 최윤지·최현자(1998), 재무비율을 이용한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6권 2호, p.83-96.
- 최현자(1996), 가계의 신규부채수요 결정요인과 부채이용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 제34권 3호, p.59-73.

_____ (2001), 다기간자원배분양식의 분석을 통한 가계부채부담의 임계수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9권 5호, p.279-291.

최현자 · 이희숙 · 양세정 · 성영애(2003),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상태 평가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제14권 1호, p.99-120.

채은석 · 성영애(2000), 부채가계의 객관적 부채부담 지표 및 기준설정을 위한 주관적 부채부담 관련요인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11호, p.1-12.

한상진(1987), 한국중산층의 개념화를 위한 시도 : 중산층의 규모와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제21권 1호, p.121-148.

Crystal S. & Shea D. (1990),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Elderl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6(3) p.227-247.

DeVaney(1993), Change in Household Financial Ratios Between 1983 and 1986 : Were American Households Improving Their Financial Statu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p.31-46.

Danes, S. M. & Stumme. P.(1995), Adjustiong to suddenly reduced income(BU-6499-G0). St. Paul : Univ. of minnesota Extension Service.

Davis E. P. & Carr R. Ann (1992), Budgeting Practices Over the Life Cycl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3.

Fan, X. J. , Chang, Y. R. & Hanna, S. (1992), Optimal Credit use with Uncertain Incom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1), p.125-133.

_____ (1997), Emergency Fund Levels : is Household Behavior Rational?,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Garman. E. T. & Forgue R. E. (1994), Personal Finance. 4rd ed.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 Griffith(1985), Personal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 A modest beginning. In G. Langreher (Ed.) The Proceeding of AFCPE. p.123-131.
- Hatcher, C. B. (1997), A Model of Desired Wealth at Retirement,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8(1), p.57-64.
- Heffran, C. (1982), Determinants and Patterns of Family sav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1), p.47-55.
- Hira, T. K. , Fanslow, A. M. & Titus, P. M. (1989), Changes in financial status influencing level of satisfaction in household. *Lifecycles : Family and Economic Issues* 10(2), p.107-122.
- Hira, T. K. (1990), Changes in factors influencing consumer debt among Scottish families, 1984-1986,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4, p.165-175.
- Hogarth, J. M. (1991), Asset Management and Retired Households : Savers, Dissavers and Alternator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 p.97-121.
- Hong, G. & Swanson, P. M. (1995), Comparison of Financial Well-Being of Older Women : 1977 and 1989,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6 p.129-138.
- Langrehr, V. B. & Langrehr, F. W. (1989), Measuring the Ability to Repay : The Residual Income Ratio.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3(2), p.393-406.
- Lytton. R. H. , Garman. E. T. & Porter. N. M. (1991), How to use Financial ratio When Advising Client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 p.3-24.
- Prather. C. G. (1990), The ratio technique applied to personal finance

statements : Development of household norms. FC & P 1, p.53-70.

Waddell, F. E. (1999). 고객관리를 위한 재무상담, 김경자 외 편역, 시그마프레스

ABSTRACT

Household's Financial Status Estimation

Han, Su Jin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Every household has limited resources to fulfill each member of family's needs and to build a stable financial condition. Also, the gross utility of each household is maintained when the level of consumption is maximized in all circumstances. However, it is difficult for the family to determine its maximum utility and to understand the financial structure that will bring this about. Therefore, this research will analyze household financial structures and ratios to understand factors of household utility.

The following are main themes:

First, what kinds financial structures are found at each level of income?

Second, how they are different by the level of income?

Third, what factors contribute to the appropriate financial ratio?

The themes are supported by texts on financial ratios from inside and outside of Korea and proved by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the fifth annual edition. Households that do not support the household principle record in the principle and household economy record are exempted.

Other households excluded are those that do not meet stand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cost per man that is repor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144,944 won (345,412 won X 12 months). Accordingly, this survey is from the 3,762 household financial structure analysis.

The analysis utilizes SPSS Window (Version 10.0) statistics program. This is a basic statistics program featuring frequency, average, standard deviation and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ANOVA, Duncan's post verification, Logit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ncome level 4 and above who have higher income levels are highly ranked on the income and expense level, and asset and debt rate. Level 4, as a high-income level, has a strong financial structure otherwise low-income level, the level 1 does not. Apparently, the management of the household is complicated by debt redemption and a lower level of assets.

Second, when a principle earner of the household is younger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se related ratio is more stable, and in the property related ratio when it is older. This proves that households with older earners are more interested in interest assets and real estate.

Single earner or without children households are comparatively stable, especially considering that households with more people cause the stress in the financial structure of the household. It reflects why no kid or single household cases have increased recently.

An unemployed husband and wife case has a higher current liability than an employed. The employed spouse household has more income though the other has more assets. So the plenty of asset is not the reason to let the spouse get a job, the women's economy participation is still dependent upon the household financial status.

The household in Seoul gets 7 degrees higher than others when considering investment asset ratio. It seems this is recommendable to sustain the quality of living after a retirement.

Third, financial safety and a prospective financial structure at each income level is an important variable. High-income households, especially, have to balance their finances and capital, cutting liabilities and raising the total assets. In other words, the family must hold assets according to the character and income level of the household and to enhance efficiency.

This research is a useful resource for decision-making to improve household financial structure stability. Also, it can be adapted to evaluate financial products for specific households and used for economic and social welfare planning to predict how households influence the national wide economy.

<부 록>

<부록1> 가계재무비율 준거기준 만족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독립변수 평균

	가구주연령	자녀수	가구주교육수준	가구주직업	거주지	소득2분위	소득3분위	소득4분위	혹자가계여부	순자산보유여부	가계경제 여건평가	우리나라경제 여건평가
n	3762	3762	3762	3012	3762	3762	3762	3762	3757	3724	3746	3745
M	47.55	1.47	.28	5.91E-02	.24	.2525	.2570	.2406	.82	.50	3.93	3.54
S.D.	12.67	.96	.45	.24	.43	.4345	.4371	.4275	.38	.50	1.10	1.19

<부록 2>

연구모형 2.
$$\log\left[\frac{P_i}{1-P_i}\right]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beta_5 X_5 + \beta_6 X_6 + \beta_7 X_7 + \beta_8 X_8 + \beta_9 X_9 + \beta_{10} X_{10} + \varepsilon_i$$

P_i : 가계재무비율 준거기준 만족 확률

X_1 : 가구주 연령

X_2 : 자녀수

X_3 : 가구주교육수준(대졸=1)

X_4 : 가구주 직업(전문직=1)

X_5 : 거주지(서울=1)

X_6 : 월평균가계소득

X_7 : 순자산 보유여부(순자산>0=1)

X_8 : 흑자가계여부(유=1)

X_9 : 가계경제여건평가

X_{10} : 우리나라 경제여건평가

$$\frac{P_i}{1-P_i} = \beta_j \cdot \frac{e^{\beta_j X_j}}{(1+e^{\beta_j X_j})^2}$$

$$X_\beta = \beta_0 + \beta_1 \text{가구주 연령} + \beta_2 \text{자녀수} + \beta_3 \text{가구주 교육수준} + \beta_4 \text{가구주 직업} + \beta_5 \text{거주지} + \beta_6 \text{월평균가계소득} \\ + \beta_7 \text{순자산 보유여부} + \beta_8 \text{흑자가계여부} + \beta_9 \text{가계경제여건 평가} + \beta_{10} \text{우리나라 경제여건 평가}$$

$$P = \frac{e^{X_\beta}}{1+e^{X_\beta}}$$

P = 가계재무비율 준거기준 만족 확률, X = 가구주연령 외, β = logit 파라미터

<부록2-1> 가계재무비율 준거기준 만족 영향요인분석

	Ratio 1			Ratio 2			Ratio3			Ratio4			Ratio5			Ratio6			Ratio7		
	B	Exp(B)	#	B	Exp(B)	#	B	Exp(B)	#	B	Exp(B)	#	B	Exp(B)	#	B	Exp(B)	#	B	Exp(B)	#
사회인구학적 변수																					
가구주 연령	-.020**	.980	-0.005	-.031***	.969	-0.007	.003	1.003	0.001	-.025**	.975	-0.001	-.010	.990	-0.002	-.005	.995	-0.001	-.011	.989	-0.0001
자녀수	-.434***	.648	-0.108	.147**	1.158	0.032	.060	1.062	0.012	-.221*	.802	-0.010	-.056	.946	-0.013	.057	1.059	0.007	.283*	1.327	0.003
가구주교육수준(대졸=1)	-.198	.820	-0.049	.303**	1.353	0.067	.406**	1.500	0.080	-.087	.917	-0.004	.432**	1.540	0.098	.229	1.257	0.027	.030	1.031	0.0003
가구주 직업(전문직=1)	-.216	.806	-0.054	-.020	.980	-0.004	-.398	.671	-0.078	-.593	.552	-0.026	-.588*	.555	-0.134	.407	1.503	0.047	-.251	.778	-0.002
거주지(서울=1)	-.354*	.702	-0.088	.024	1.025	0.005	.204	1.227	0.040	.182	1.200	0.008	.300*	1.350	0.068	.065	1.067	0.008	.329	1.390	0.003
채무관련 변수																					
월소득	.010***	1.010	0.002	.000	1.000	0.0002	.000	1.000	0.0002	-.001*	.999	-4.4E-05	.001**	1.001	0.0002	.000	1.000	0.0001	-.001*	.999	-9.8E-06
순자산보유여부 (순자산>0=1)	.051	1.052	0.013	1.105***	3.020	0.243	2.861***	17.476	0.563	-.946***	.388	-0.041	2.149***	8.574	0.488	.605**	1.832	0.070	11.494	98163.3	0.113
흑자가계여부(유=1)	13.680*	873393.84	3.401	.470***	1.600	0.103	.431**	1.539	0.085	.409	1.505	0.018	.641***	1.899	0.146	.947***	2.577	0.110	-.435	.647	-0.004
기타변수																					
가계경제여건 평가	-.010	.990	-0.002	-.139**	.871	-0.031	-.144**	.866	-0.028	-.081	.922	-0.004	-.106	.900	-0.024	.110	1.116	0.013	.061	1.063	0.001
우리나라 경제여건평가	.024	1.024	0.006	-.027	.973	-0.006	.006	1.006	0.001	.024	1.024	0.001	.007	1.007	0.002	-.037	.964	-0.004	-.100	.904	-0.001
상수	-11.766	.000		1.365***	3.915		-.848**	.428		5.177***	177.144		-.421	.656		.297	1.346		-9.610	.000	
-2 Log Likelihood	1356.906			3564.319			2758.997			910.206			1827.805			1122.815			675.469		
Model Chi-Square	1880.798***			376.759***			1136.283***			40.748***			380.842***			54.287***			541.628***		
Concordant rate	92.3%			66.6%			78.5%			94.3			70.3%			81.8%			82.6%		
N	2961			2959			2961			2173			1594			1239			880		

*p < .05, **p < .01, ***p < .001

<부록2-2> Ratio 1 준거기준 만족 영향요인분석

	소득1분위			소득2분위			소득3분위			소득4분위		
	B	Exp(B)	#	B	Exp(B)	#	B	Exp(B)	#	B	Exp(B)	#
사회인구학적 변수												
가구주 연령	.007	1.007	5.38E-05	-.022	.979	-0.005	-.037*	.963	-0.0004	-.071*	.931	-0.001
자녀수	-.405**	.667	-0.003	-.494**	.610	-0.123	-.412*	.662	-0.005	-.741*	.476	-0.014
가구주교육수준(대졸=1)	-.460	.631	-0.004	-.217	.805	-0.054	.069	1.071	0.001	-.882	.414	-0.017
가구주 직업(전문직=1)	.813	2.255	0.006	-.060	.942	-0.015	.122	1.129	0.001	-.676	.509	-0.013
거주지(서울=1)	-.719	.487	-0.006	-.579*	.560	-0.144	.175	1.191	0.002	.313	1.368	0.006
재무관련 변수												
월소득	.024**	1.024	0.0002	.003	1.003	0.001	.024***	1.024	0.0003	.004	1.004	7.57E-05
순자산보유여부(순자산>0=1)	.055	1.057	0.0004	.205	1.228	0.0511	-.051	.951	-0.001	-.479	.619	-0.009
흑자가계여부(유=1)	12.172	193340.7	0.094	11.893	146233.9	2.965	12.129	185171.7	0.136	12.694	325807.7	0.240
기타변수												
가계경제여건 평가	.003	1.003	2.31E-05	-.030	.970	-0.007	.071	1.074	0.008	.063	1.065	0.001
우리나라 경제여건평가	-.039	.962	-0.0003	.082	1.085	0.020	.044	1.045	0.001	-.031	.969	-0.001
상수	-12.722	.000		-8.844	.000		-12.902	.000		-5.230	.005	
-2 Log Likelihood	330.679			468.380			335.918			170.710		
Model Chi-Square	453.289***			453.785			345.790***			109.358***		
Concordant rate	86.6%			89.4%			94.1%			97.3%		
N	573			774			828			786		

*p < .05, **p < .01, ***p < .001

<부록2-3> Ratio 2 준거기준 만족 영향요인분석

	소득1분위			소득2분위			소득3분위			소득4분위		
	B	Exp(B)	#	B	Exp(B)	#	B	Exp(B)	#	B	Exp(B)	#
사회인구학적 변수												
가구주 연령	-.024**	.976	-0.006	-.049***	.952	-0.012	-.017	.983	-0.004	-.027**	.974	-0.005
자녀수	.145	1.156	0.035	-.088	.916	-0.021	.034	1.035	0.007	.077	1.080	0.0147
가구주교육수준(대졸=1)	-.138	.871	-0.034	.326	1.385	0.077	.418*	1.519	0.086	.111	1.118	0.021
가구주 직업(전문직=1)	.695	2.003	0.170	-.299	.741	-0.071	-.561	.571	-0.116	.176	1.193	0.034
거주지(서울=1)	-.235	.791	-0.057	.093	1.098	0.022	-.100	.905	-0.027	.099	1.104	0.019
재무관련 변수												
월소득	.010*	1.010	0.002	.015***	1.015	0.004	.002	1.002	0.0004	-.001***	.999	-0.0002
순자산보유여부(순자산>0=1)	1.063***	2.896	0.260	1.441***	4.224	0.340	1.024***	2.784	0.212	.952***	2.592	0.181
흑자가계여부(유=1)	-.021	.979	-0.005	-.213	.808	-0.050	1.042***	2.835	0.215	.072	1.074	0.014
기타변수												
가계경제여건 평가	-.263**	.768	-0.064	.157	1.170	0.037	-.106	.900	-0.022	-.212**	.809	-0.040
우리나라 경제여건평가	-.059	.943	-0.014	-.177*	.838	-0.042	-.013	.987	-0.002	.111	1.117	0.021
상수	.936	2.550		-.085	.919		.002	1.002		2.306**	10.032	
-2 Log Likelihood	713.682			904.621			958.714			878.557		
Model Chi-Square	73.724***			141.423			86.050***			76.226***		
Concordant rate	66.0%			68.0%			68.0%			72.4%		
N	573			774			827			785		

*p < .05, **p< .01, ***p < .001

<부록2-4> Ratio 3 준거기준 만족 영향요인분석

	소득1분위			소득2분위			소득3분위			소득4분위		
	B	Exp(B)	#	B	Exp(B)	#	B	Exp(B)	#	B	Exp(B)	#
사회인구학적 변수												
가구주 연령	.017	1.017	0.004	-.011	.989	-0.002	-.008	.992	-0.002	.007	1.007	0.001
자녀수	-.143	.867	-0.036	-.165	.848	-0.037	.249*	1.282	0.048	-.039	.962	-0.006
가구주교육수준(대졸=1)	-.065	.937	-0.016	.355	1.426	0.080	.256	1.291	0.049	.392	1.479	0.063
가구주 직업(전문직=1)	.009	1.009	0.002	-.075	.928	-0.017	-.714	.490	-0.137	-.473	.623	-0.076
거주지(서울=1)	.085	1.089	0.021	.267	1.306	0.060	-.072	.931	-0.014	.340	1.404	0.055
재무관련 변수												
월소득	.007	1.007	0.002	.005	1.005	0.001	.007*	1.008	0.001	-.001**	.999	-0.0002
순자산보유여부(순자산>0=1)	3.299***	27.081	0.820	3.280***	26.569	0.740	2.998***	20.050	0.575	2.161***	8.680	0.347
흑자가계여부(유=1)	.032	1.032	0.008	.128	1.136	0.029	-.303	.738	-0.058	.454	1.575	0.073
기타변수												
가계경제여건 평가	-.127	.880	-0.032	.100	1.105	0.023	-.159	.853	-0.031	-.195*	.823	-0.031
우리나라 경제여건평가	.014	1.014	0.003	-.124	.883	-0.028	-.009	.991	-0.002	.097	1.102	0.016
상수	-2.086*	.124		-1.212	.297		-1.320	.267		-.002	.998	
-2 Log Likelihood	511.493			681.861			748.505			715.120		
Model Chi-Square	280.952***			369.865***			291.153***			169.968***		
Concordant rate	82.7%			81.8%			76.6%			77.0%		
N	573			774			828			786		

*p < .05, **p < .01, ***p < .001

<부록2-5> Ratio 4 준거기준 만족 영향요인분석

	소득1분위			소득2분위			소득3분위			소득4분위		
	B	Exp(B)	#	B	Exp(B)	#	B	Exp(B)	#	B	Exp(B)	#
사회인구학적 변수												
가구주 연령	-.019	.982	-0.001	-.040	.961	-0.0004	-.040*	.961	-0.001	-.009	.991	-0.0003
자녀수	-.299	.741	-0.014	-.596	.551	-0.006	.044	1.045	0.001	-.156	.856	-0.006
가구주교육수준(대졸=1)	-1.402*	.246	-0.066	.779	2.180	0.008	-.427	.652	-0.012	.452	1.571	0.016
가구주 직업(전문직=1)	6.062	429.174	0.2856	4.443	85.068	0.043	-1.094	.335	-0.032	-.673	.510	-0.024
거주지(서울=1)	1.611	5.009	0.076	.113	1.120	0.001	-.301	.740	-0.009	.286	1.331	0.010
계무관련 변수												
월소득	-.004	.996	-0.0002	-.006	.994	-5.814E-05	.007	1.007	0.0002	.001	1.000	3.57E-05
순자산보유여부(순자산>0=1)	-.673	.510	-0.032	-1.826	.161	-0.018	-1.619**	.198	-0.047	-.714*	.490	-0.025
흑자가계여부(유=1)	.051	1.052	0.002	-.096	.908	-0.001	1.319**	3.741	0.038	-4.431	.012	-0.158
기타변수												
가계경제여건 평가	-.209	.811	-0.010	.163	1.177	0.002	-.053	.948	-0.001	-.050	.952	-0.002
우리나라 경제여건평가	.337	1.401	0.016	-.004	.996	-3.9E-05	-.204	.816	-0.006	.015	1.015	0.001
상수	4.432*	84.094		8.270*	3905.189		4.348*	77.348		8.167	3521.921	
-2 Log Likelihood	140.887			109.974			233.505			379.592		
Model Chi-Square	15.439			11.457			26.557**			12.974		
Concordant rate	93.6%			97.5%			94.9			91.7%		
N	330			517			641			658		

*p < .05, **p < .01, ***p < .001

<부록2-6> Ratio 5 준거기준 만족 영향요인분석

	소득1분위			소득2분위			소득3분위			소득4분위		
	B	Exp(B)	#	B	Exp(B)	#	B	Exp(B)	#	B	Exp(B)	#
사회인구학적 변수												
가구주 연령	.007	1.007	0.002	-.015	.985	-0.003	-.013	.987	-0.002	-.012	.988	-0.002
자녀수	-.306	.737	-0.068	-.270	.763	-0.056	.133	1.142	0.025	-.105	.900	-0.015
가구주교육수준(대졸=1)	-.018	.982	-0.004	.655	1.926	0.137	.330	1.391	0.061	.376	1.457	0.054
가구주 직업(전문직=1)	-.230	.795	-0.051	.122	1.130	0.025	-1.171*	.310	-0.217	-.460	.632	-0.066
거주지(서울=1)	-.071	.932	-0.016	.545	1.724	0.114	.027	1.027	0.005	.412	1.510	0.059
재무관련 변수												
월소득	.017*	1.017	0.004	.010	1.010	0.002	.008*	1.008	0.001	.001	1.000	0.0001
순자산보유여부(순자산>0=1)	2.107***	8.223	0.468	3.268***	26.257	0.681	2.233***	9.329	0.413	1.641***	5.159	0.235
혹자가계여부(유=1)	.157	1.170	0.035	.415	1.515	0.087	.202	1.224	0.037	.595	1.813	0.085
기타변수												
가계경제여건 평가	.024	1.025	0.005	-.035	.966	-0.007	-.166	.847	-0.031	-.040	.961	-0.006
우리나라 경제여건평가	.004	1.004	0.001	-.034	.966	-0.007	.030	1.030	0.006	-.004	.996	-0.001
상수	-2.769*	.063		-1.572	.208		-1.266	.282		.156	1.169	
-2 Log Likelihood	297.066			400.086			528.241			540.252		
Model Chi-Square	43.626***			121.918***			82.284***			69.717***		
Concordant rate	77.0%			75.1%			67.7%			67.7%		
N	283			385			449			477		

*p < .05, **p < .01, ***p < .001

<부록2-7> Ratio 6 준거기준 만족 영향요인분석

	소득1분위			소득2분위			소득3분위			소득4분위		
	B	Exp(B)	#	B	Exp(B)	#	B	Exp(B)	#	B	Exp(B)	#
사회인구학적 변수												
가구주 연령	.022	1.022	0.005	.001	1.001	0.0001	.006	1.006	0.001	-.024	.977	-0.002
자녀수	.080	1.083	0.018	-.162	.851	-0.019	-.029	.972	-0.002	-.318	.728	-0.033
가구주교육수준(대졸=1)	.963*	2.621	0.219	-.172	.842	-0.020	-.146	.865	-0.012	.214	1.239	0.022
가구주 직업(전문직=1)	.017	1.017	0.004	1.049	2.854	0.122	1.424	4.152	0.118	-.028	.973	-0.003
거주지(서울=1)	-.60	.544	-0.138	-.054	.947	-0.006	.038	1.038	0.003	.287	1.332	0.029
재무관련 변수												
월소득	.011	1.011	0.003	-.004	.996	-0.001	.005	1.005	0.0004	-.001	.999	-0.0001
순자산보유여부(순자산>0=1)	-.192	.825	-0.044	1.130*	3.095	0.132	-.005	.995	-0.0004	.913*	2.491	0.094
흑자가계여부(유=1)	.558	1.747	0.127	.158	1.171	0.018	1.305**	3.689	0.108	.843	2.323	0.086
기타변수												
가계경제여건 평가	.150	1.162	0.034	.190	1.209	0.022	.025	1.025	0.002	.259	1.296	0.027
우리나라 경제여건평가	.167	1.182	0.038	-.066	.936	-0.008	.128	1.136	0.011	-.235	.791	-0.024
상수	-3.054*	.047		1.469	4.345		-.877	.416		2.536275.9	12.628	
-2 Log Likelihood	256.893			294.092			231.775			19.697*		
Model Chi-Square	15.279			9.746			10.279			86.5%		
Concordant rate	64.3%			79.1%			89.4%			379		
N	207			296			357					

*p < .05, **p< .01, ***p < .001

<부록2-8> Ratio 7 준거기준 만족 영향요인분석

	소득1분위			소득2분위			소득3분위			소득4분위		
	B	Exp(B)	#	B	Exp(B)	#	B	Exp(B)	#	B	Exp(B)	#
사회인구학적 변수												
가구주 연령	-.045	.956	-2.97E-05	.018	1.018	0.0002	-.005	.995	-6.142E-05	-.047**	.954	-0.0008
자녀수	-.048	.953	-3.2E-05	.814**	2.256	0.009	.213	1.237	0.003	.367	1.444	0.006
가구주교육수준(대졸=1)	8.347	4217.847	0.006	-.124	.883	-0.001	-.789*	.454	-0.010	.633	1.884	0.010
가구주 직업(전문직=1)	3.116	22.556	0.002	-1.299	.273	-0.014	.985	2.678	0.012	-.703	.495	-0.011
거주지(서울=1)	-1.310	.270	-0.001	.093	1.098	0.001	.589	1.802	0.007	.593	1.810	0.009
재무관련 변수												
월소득	-.010	.990	-6.6E-06	-.009	.991	-9.5E-05	-.002	.998	-2.457E-05	-.001	.999	-1.6E-05
순자산보유여부(순자산>0=1)	18.255	84710088.1	0.012	11.963	156877.2	0.126	11.467	95546.8	0.141	12.355	232117.1	0.197
흑자가계여부(유=1)	-1.205	.300	-0.001	.298	1.347	0.003	.905	2.473	0.011	-4.443	.012	-0.071
기타변수												
가계경제여건 평가	-.097	.907	-6.4E-05	-.359	.699	-0.004	.240	1.272	0.003	.074	1.076	0.001
우리나라 경제여건평가	1.918	6.806	0.001	-.009	.991	-9.5E-05	-.309	.734	-0.004	-.132	.876	-0.002
상수	-17.575	.000		-9.867	.000		-10.604	.000		-5.485	.004	
-2 Log Likelihood	19.377			133.629			201.016			274.400		
Model Chi-Square	73.131***			127.324***			182.810***			203.521***		
Concordant rate	94.0%			83.8%			82.7%			80.6%		
N	67			191			277			345		

*p < .05, **p< .01, ***p < .001